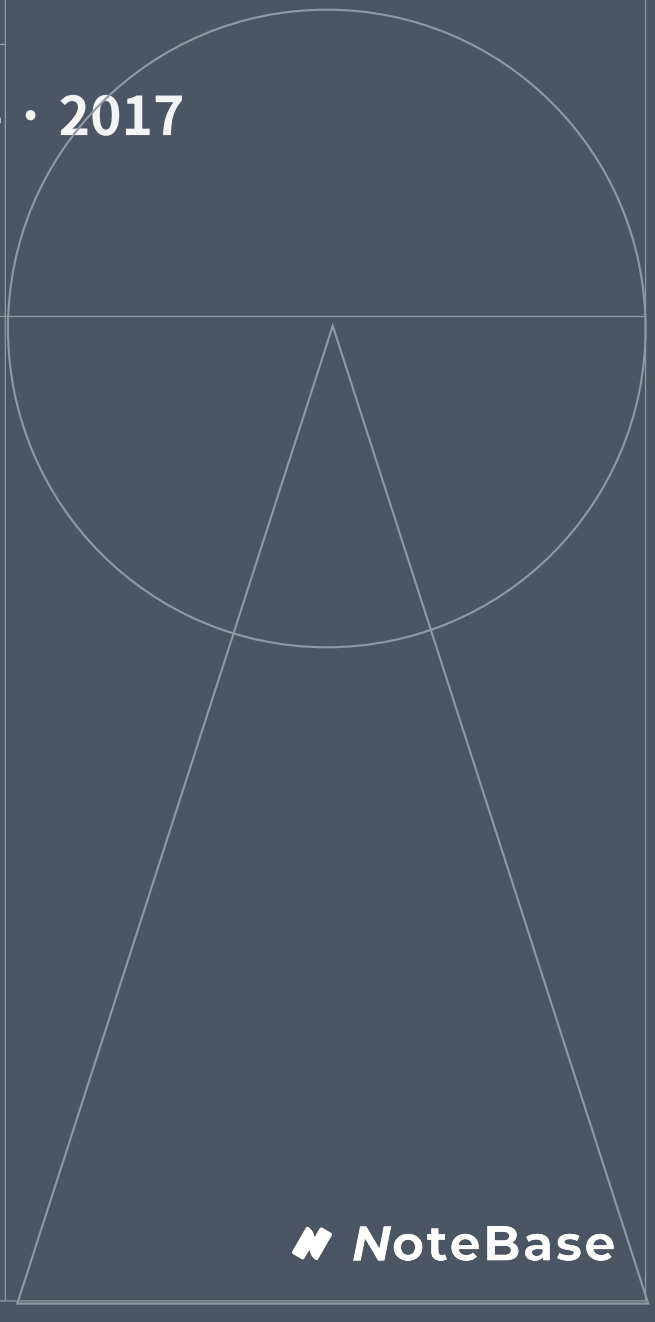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회계학개론 · 2017



NoteBas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회계학개론 · 2017

전문직/세무사 · 회계학개론 · 2017

문 1. (주)세무는 20x1년 초 친환경 영업용 차량(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을 공정가치 ₩10,000,000에 취득하면서, 자산취득에 따른 정부보조금으로 ₩5,000,000을 수취하였다. 동 차량을 중도처분할 경우 내용연수 미사용 기간에 비례하여 정부보조금 잔액을 즉시 상환한다.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월할상각)을 적용하였으며, 20x3년도 7월 1일에 동 자산을 ₩4,000,000에 처분하였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의 표시방법으로 장부금액에서 차감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동 차량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x1년 말 차량의 장부금액은 ₩4,000,000이다.

② 20x2년 말 정부보조금 잔액은 ₩3,000,000이다.

③ 20x2년도의 동 차량과 관련하여 인식할 당기손익은 (-)₩2,000,000이다.

④ 20x3년 처분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은 ₩1,500,000이다.

⑤ 20x3년 정부보조금 상환금액은 ₩2,500,000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순장부금액의 감가상각, 처분손익, 미사용 기간에 대응하는 보조금 상환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차량 취득가액은 10,000,000원이고 정부보조금은 5,000,000원이므로 최초 순장부금액은 5,000,000원이다.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0원이므로 연간 순감가상각비는 1,000,000원이다. 처분일은 20x3년 7월 1일이므로 20x3년에는 6개월분을 월할상각한다. 정부보조금도 차량의 사용에 맞추어 연간 1,000,000원씩 감소하며, 처분 시 남은 잔액을 상환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20x1년 말 순장부금액: 5,000,000원 - 1,000,000원 = 4,000,000원
20x2년 말 정부보조금 잔액: 5,000,000원 - 1,000,000원 × 2년 = 3,000,000원
20x3년 7월 1일 순장부금액: 5,000,000원 - 1,000,000원 × 2.5년 = 2,500,000원
처분이익: 처분가액 4,000,000원 - 순장부금액 2,500,000원 = 1,500,000원
정부보조금 상환액: 5,000,000원 - 1,000,000원 × 2.5년 = 2,500,000원

선지 판단

① O. 20x1년 감가상각비 1,000,000원을 최초 순장부금액 5,000,000원에서 차감하면 차량의 장부금액은 4,000,000원이다.
② O. 정부보조금은 20x1년과 20x2년에 각각 1,000,000원씩 감소하므로 20x2년 말 잔액은 3,000,000원이다.
③ X. 20x2년에는 차감 표시된 순장부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1,000,000원만 당기손익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틀린 표현인 '(-)2,000,000원'은 '(-)1,00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처분 직전 순장부금액은 2,500,000원이므로 처분가액 4,000,000원과의 차이인 1,500,000원이 유형자산처분이익이다.
⑤ O. 처분일 현재 미사용 기간에 대응하는 정부보조금 잔액은 2,500,000원이므로 전액 상환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차량의 취득가액 10,000,000원만 보고 연간 감가상각비를 2,000,000원으로 계산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보조금을 장부금액에서 차감 표시하면 별도의 보조금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순액 5,000,000원을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므로 연간 당기손익 영향은 (-)1,000,000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차감 표시형 정부보조금 문제는 '취득가액 - 보조금 = 최초 순장부금액'을 먼저 구하고, 그 순액으로 감가상각비와 처분 직전 장부금액을 계산한다. 상환액은 처분일 현재 미사용 기간에 대응하는 보조금 잔액으로 별도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차감 표시법에서는 보조금을 자산에서 빼고 순액을 감가상각한다. 처분손익은 처분가액과 처분 직전 순장부금액의 차이이고, 남은 보조금은 상환액이다.

NoteBase

문 2. 금융자산의 손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②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아무리 발생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③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

④ 금융상품이 더 이상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아 활성시장이 소멸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손상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⑤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등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금융자산의 손상을 판단하는 객관적 증거와 손상사건이 영향을 미쳐야 하는 대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금융자산의 손상은 최초 인식 후 발생한 손상사건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있고, 그 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인정된다. 핵심 구별은 손상사건의 영향 대상이 유효이자율이 아니라 추정미래현금흐름이라는 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에 영향을 미친 경우'이다. 손상사건은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유효이자율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때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② O —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사건에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발생가능성이 높더라도 인식하지 않는다. 손상 인식에는 이미 발생한 손상사건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

③ O —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보다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사실은 손상의 객관적 증거가 된다.

④ O — 활성시장의 소멸만으로 손상이 반드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 거래가 중단된 사정이 곧바로 발행자의 재무적 어려움이나 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⑤ O —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의 불이행·지연 같은 계약 위반은 채무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 주므로 손상의 객관적 증거가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유효이자율'이라는 회계 용어를 넣어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든 선지이다. 그러나 손상사건의 결과가 반영되는 대상은 추정미래현금흐름이고, 유효이자율은 그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할 때 쓰이는 측정 기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손상 여부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가 → 이미 발생한 사건인가 →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이 있는가'의 순서로 판단한다. 유효이자율은 손상 발생 여부의 대상이 아니라 손상차손 측정 단계의 할인 기준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손상사건은 미래현금흐름에 영향, 유효이자율은 손상차손 측정에 사용한다.

NoteBase

문 3. (주)세무는 20x1년 초 건물(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0)을 ₩1,000,000에 취득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이중체감법(상각률 40%)으로 감가상각하였다. 재평가일인 20x1년 말 건물의 공정가치가 ₩900,000이고 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재평가 회계처리할 때, 재평가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① (차변): 감가상각누계액400,000 / (대변): 건물 100,000 재평가잉여금 300,000

②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260,000 / (대변): 재평가잉여금 260,000

③ (차변): 감가상각누계액360,000 / (대변): 건물 100,000 재평가잉여금 260,000

④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 (대변): 재평가잉여금 400,000

⑤ (차변): 재평가손실 100,000 / (대변): 건물 100,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중체감법으로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을 계산한 뒤, 감가상각누계액을 총장부금액에서 제거하는 재평가 분개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득원가: 1,000,000원
상각률: 40%
잔존가치: 100,000원
재평가일 공정가치: 900,000원
재평가 방법: 감가상각누계액을 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제거한다.

사용할 공식

감가상각비=기초 장부금액×상각률
이중체감법은 기초 장부금액에 상각률을 곱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재평가증가액은 재평가일 공정가치에서 재평가 직전 순장부금액을 차감하여 구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x1년 감가상각비는 1,000,000원 × 40% = 400,000원이다.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600,000원은 잔존가치 100,000원보다 크므로 별도의 잔존가치 조정은 없다.
2. 재평가 직전 순장부금액은 1,000,000원 - 400,000원 = 600,000원이다.
3. 공정가치 900,000원으로 올려야 하므로 재평가증가액은 900,000원 - 600,000원 = 300,000원이다.
4. 누계액 제거 분개는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400,000원, 대변 건물 400,000원이다. 이어서 차변 건물 300,000원, 대변 재평가잉여금 300,000원을 기록한다.
5. 두 분개를 합치면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400,000원, 대변 건물 100,000원 및 재평가잉여금 30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O — 누계액 제거액 400,000원과 재평가증가액 300,000원을 반영한 결합 분개이다. 건물 계정은 대변 400,000원과 차변 300,000원이 상계되어 순액 100,000원이 대변에 남는다.
② X — '감가상각누계액 260,000원'과 '재평가잉여금 260,000원'이 모두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400,000원, 대변 건물 100,000원 및 재평가잉여금 300,000원이다.
③ X — '감가상각누계액 360,000원'과 '재평가잉여금 260,000원'이 잘못되었다. 이중체감법에 따른 누계액은 400,000원이고 재평가증가액은 300,000원이므로 ①의 분개로 고쳐야 한다.
④ X — '재평가잉여금 400,000원'이 잘못되었다. 재평가잉여금은 감가상각누계액과 같은 금액이 아니라 공정가치 900,000원과 순장부금액 600,000원의 차이인 300,000원이며, 결합 분개에는 대변 건물 100,000원도 포함된다.
⑤ X — '재평가손실 100,000원'이 잘못되었다. 공정가치가 순장부금액보다 300,000원 높으므로 재평가손실이 아니라 재평가잉여금 300,000원을 대변에 인식하며, 올바른 결합 분개는 ①이다.

오답 포인트

감가상각누계액 400,000원을 곧바로 재평가잉여금으로 보는 것이 함정이다. 재평가잉여금은 누계액 제거액이 아니라 공정가치와 재평가 직전 순장부금액의 차이인 300,000원이다. 또한 두 분개를 합칠 때 건물 계정의 대변 400,000원과 차변 300,000원을 상계하여 대변 100,000원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감가상각비와 재평가 직전 순장부금액을 구하고, 다음으로 공정가치와의 차이를 재평가증가액 또는 감소액으로 판단한다. 누계액 제거법에서는 누계액 제거 분개와 공정가치 조정 분개를 각각 만든 뒤 같은 자산 계정을 상계한다.

암기 포인트

누계액 제거액은 기존 감가상각누계액이고, 재평가잉여금은 공정가치와 순장부금액의 차이이다.

NoteBase

문 4. (주)세무는 20x1년 초 사채(액면금액 ₩100,000, 만기 3년, 매 연말 이자지급 표시이자율 5%)를 ₩87,565에 발행하였으며, 유효이자율은 10%이다. 20x2년 말 사채관련 이자비용 회계처리를 한 후 장부마감 전에 20x1년과 20x2년에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이 아닌 정액법으로 상각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20x2년 수정분개로 옳은 것은?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	10%	5%	10%
1	0.95238	0.90909	0.95238	0.90909
2	0.90703	0.82645	1.85941	1.73554
3	0.86384	0.75131	2.72325	2.48685

① (차변): 사채할인발행차금401 / (대변): 이자비용 401

② (차변): 사채할인발행차금401 / (대변): 이자비용 13 이익잉여금 388

③ (차변): 사채할인발행차금401 / (대변): 이익잉여금 401

④ (차변): 이자비용 401 / (대변): 사채할인발행차금401

⑤ (차변): 이자비용 13 이익잉여금 388 / (대변): 사채할인발행차금401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누적 상각액과 잘못 적용한 정액법의 누적 상각액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전기분과 당기분으로 나누어 수정분개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액면금액은 ₩100,000, 발행금액은 ₩87,565, 표시이자율은 5%, 유효이자율은 10%, 만기는 3년이다.
매년 현금이자는 ₩100,000 × 5% = ₩5,000이다.
총 할인발행차금은 ₩100,000 - ₩87,565 = ₩12,435이므로 정액법 상각액은 매년 ₩12,435 ÷ 3 = ₩4,145이다.
발견 시점은 20x2년 이자비용을 이미 기록한 뒤이므로 20x1년의 오류는 이익잉여금으로, 20x2년의 오류는 이자비용으로 수정한다.

사용할 공식

유효이자율법의 이자비용은 기초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이고,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이자비용-현금이자이다.
정액법은 총 할인발행차금을 만기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하지만, 유효이자율법은 매기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므로 두 방법의 연도별 상각액이 달라진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x1년 유효이자율법 이자비용은 ₩87,565 × 10% = ₩8,756.5, 즉 반올림하면 ₩8,757이다. 따라서 유효이자율법 상각액은 ₩8,757 - ₩5,000 = ₩3,757이다. 정액법 상각액 ₩4,145가 ₩388 더 크므로 20x1년 이자비용이 ₩388 과대계상되었고, 수정 시 이익잉여금을 ₩388 대변에 기록한다.
2. 20x1년 말 사채 장부금액은 ₩87,565 + ₩3,757 = ₩91,322이다. 20x2년 유효이자율법 이자비용은 ₩91,322 × 10% ☒ ₩9,132이고, 상각액은 ₩9,132 - ₩5,000 = ₩4,132이다. 정액법 상각액 ₩4,145가 ₩13 더 크므로 20x2년 이자비용을 ₩13 대변에서 감소시킨다.
3. 두 해 동안 할인발행차금이 ₩388 + ₩13 = ₩401만큼 과다 상각되었으므로 사채할인발행차금을 ₩401 차변에서 복구한다. 따라서 수정분개는 차변 사채할인발행차금 ₩401, 대변 이자비용 ₩13 및 이익잉여금 ₩388이다.

선지 판단

① X — 차변 사채할인발행차금 ₩401은 맞지만 전액을 당기 이자비용에서 차감하면 전기인 20x1년의 오류까지 당기손익으로 수정하게 된다. 올바르게는 대변을 이자비용 ₩13과 이익잉여금 ₩388로 나눈다.
② O —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누적 과다 상각액 ₩401을 차변에서 복구하고, 당기 과대계상액 ₩13은 이자비용, 전기 과대계상액 ₩388은 이익잉여금의 대변에 기록한다.
③ X — 대변 전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면 20x2년 당기 이자비용의 과대계상액 ₩13이 수정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이익잉여금 ₩388과 이자비용 ₩13을 각각 대변에 기록한다.
④ X — 사채할인발행차금은 ₩401 과다 상각되어 잔액이 그만큼 부족하므로 대변이 아니라 차변에 기록해야 한다. 올바르게는 차변 사채할인발행차금 ₩401, 대변 이자비용 ₩13 및 이익잉여금 ₩388이다.
⑤ X — 전기분 ₩388과 당기분 ₩13의 구분은 맞지만 차변과 대변의 방향이 반대이다. 올바르게는 사채할인발행차금 ₩401을 차변에, 이자비용 ₩13과 이익잉여금 ₩388을 대변에 기록한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누적 차이 ₩401만 구한 뒤 이를 모두 당기 이자비용이나 모두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오류 발견 시점이 20x2년 장부마감 전이므로 20x1년분 ₩388은 전기오류로서 이익잉여금에, 20x2년분 ₩13은 당기 이자비용에 반영한다. 또한 할인발행차금을 과다 상각하면 해당 계정의 잔액이 부족하므로 이를 복구하는 방향은 차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올바른 방법과 잘못 적용한 방법의 연도별 상각액 차이를 계산한다. 다음으로 전기 차이는 이익잉여금, 당기 차이는 당기 손익계정으로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할인발행차금이 과다 상각되었으면 차변에서 복구하고, 과소 상각되었으면 대변에서 늘리는 방식으로 분개 방향을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과다 상각된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차변에서 복구하며, 전기분은 이익잉여금, 당기분은 이자비용으로 나눈다.

NoteBase

문 5. 충당부채의 변동과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떤 의무를 제삼자와 연대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이행하여야 하는 전체 의무 중에서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까지만 충당부채로 처리한다.

②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게 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한다.

③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증액하고 해당 증가금액은 차입원가로 인식한다.

④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나 전부를 제삼자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만 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회계처리한다.

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충당부채의 후속 측정·환입과 제삼자의 연대의무·변제에 관한 회계처리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충당부채는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이다. 보고기간 말마다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로 조정하고, 자원 유출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으면 환입한다. 연대의무에서는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보고, 기업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제삼자에게서 받을 변제금액은 기업이 의무를 이행할 때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까지만 충당부채로 처리한다'이다.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우발부채로 처리하고, 기업이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② O — 의무 이행에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으면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한다.
③ O —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측정한 경우 기간 경과에 따른 할인액의 상각만큼 장부금액을 늘리고, 그 증가액을 차입원가로 인식한다.
④ O — 제삼자의 변제가 예상되더라도 기업이 의무를 이행할 때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변제금액을 충당부채와 별개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⑤ O —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마다 검토하여 그 시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도록 조정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연대의무 중 '제삼자가 부담할 부분'과 '기업이 부담할 부분'을 서로 바꾸어 놓았다. 제삼자의 예상 이행분은 기업의 충당부채가 아니라 우발부채에 해당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대의무는 누가 실제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부터 구분한다. 기업의 예상 부담분은 충당부채, 제삼자의 예상 부담분은 우발부채로 판단한다. 이후 환입은 자원 유출 가능성, 변제자산은 거의 확실성, 후속 측정은 보고기간 말의 최선의 추정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업 부담분은 충당부채, 제삼자 부담분은 우발부채, 변제자산은 거의 확실할 때 인식한다.

NoteBase

문 6. 중간재무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전 연차재무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다면 중간재무보고서도 연결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연차보고기간말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자세하게 조정되는 일부 내부거래 잔액은 중간보고기간말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덜 자세하게 조정될 수 있다.

② 중간재무보고서는 당해 중간보고기간말과 직전 연차보고기간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포괄손익계산서,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자본변동표와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현금흐름표를 포함한다.

③ 계절적, 주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연차보고기간말에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중간보고기간말에도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여서는 아니된다. 배당수익, 로열티수익 및 정부보조금 등이 예이다.

④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식, 측정, 분류 및 공시와 관련된 중요성의 판단은 연차재무보고서의 재무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간기간의 측정은 연차재무자료의 측정에 비하여 추정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기대총연간이익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한다. 세무상결손금의 소급공제 혜택은 관련 세무상결손금이 발생한 중간기간에 반영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중간재무보고의 연결작성 기준, 비교재무제표의 표시기간, 수익의 인식, 중요성 판단 및 법인세비용 측정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중간재무보고는 연차보고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제공되는 재무보고이다. 중간기간의 중요성은 해당 중간기간 재무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중간 측정은 연차 측정보다 추정에 더 많이 의존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직전 연차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였다면 중간재무보고서도 연결기준으로 작성한다. 또한 중간보고에서는 원가와 시간의 제약을 고려하여 일부 내부거래 잔액의 조정을 연차말보다 덜 상세하게 수행할 수 있다.

② O
재무상태표는 당해 중간보고기간말과 직전 연차보고기간말을 비교한다. 포괄손익계산서는 당해 중간기간 및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각각 전년 동일기간과 비교하고,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는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전년 동일 누적기간과 비교한다.

③ O
계절적·주기적·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연차말에 미리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중간기간에도 그렇게 처리하지 않는다. 배당수익, 로열티수익 및 정부보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연차재무보고서의 재무자료에 근거하여'이다. 올바르게는 중간재무보고의 인식·측정·분류·공시에 관한 중요성을 해당 중간기간의 재무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다만 중간기간 측정이 연차재무자료의 측정보다 추정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점은 함께 고려한다.

⑤ O
중간기간 법인세비용은 기대총연간이익에 적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한다. 세무상결손금의 소급공제 혜택은 그 결손금이 발생한 중간기간에 반영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중간 측정이 연차 측정보다 추정에 더 의존한다'는 옳은 문장을 붙여 놓고, 중요성 판단의 기준을 '연차재무자료'로 바꾸었다. 추정의 상대적 정도와 중요성 판단의 기준 단위를 혼동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간재무보고의 중요성 문제가 나오면 판단 대상을 먼저 확인한다. 중간보고의 인식·측정·분류·공시 여부는 해당 중간기간 재무자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측정 과정에서는 연차보고보다 추정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별도로 고려한다.

암기 포인트

중요성은 중간기간 자료 기준, 측정은 연차보다 추정 의존도가 높다.

NoteBase

문 7. (주)세무는 원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하는 해외사업장으로 20x1년 초 달러 표시 재고자산을 $100에 매입하여 20x1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다. 동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와 거래일 및 20x1년 말의 환율이 다음과 같을 때, 20x1년 말 현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및 재고자산평가손실은?

구 분	외화금액	환 율
취득원가	$100	거래일 환율(₩1,000/$)
순실현가능가치	$96	20×1년 말 마감환율(₩1,050/$)

① 장부금액: ₩96,000 / 재고자산평가손실: ₩4,000

② 장부금액: ₩100,000 / 재고자산평가손실: ₩0

③ 장부금액: ₩100,000 / 재고자산평가손실: ₩4,000

④ 장부금액: ₩100,000 / 재고자산평가손실: ₩4,200

⑤ 장부금액: ₩100,800 / 재고자산평가손실: ₩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외화로 취득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를 각각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뒤 저가법을 적용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득원가: $100 USD$

순실현가능가치: $96 USD$

거래일 환율: $1,000 KRW/USD$

기말 마감환율: $1,050 KRW/USD$

재고자산은 비화폐성 자산이므로 역사적 원가에는 거래일 환율을 적용하고, 기말에 산정한 순실현가능가치에는 그 가치가 측정된 기말 환율을 적용한다.

사용할 공식

취득원가의 원화 환산액 = 외화 취득원가 × 거래일 환율

순실현가능가치의 원화 환산액 = 외화 순실현가능가치 × 기말 환율

기말 장부금액 = (취득원가,순실현가능가치)

재고자산평가손실 = (취득원가-순실현가능가치,0)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취득원가는 $100USD \times 1,000KRW/USD = 100,000KRW$이므로 100,000원이다.
2. 기말 순실현가능가치는 $96USD \times 1,050KRW/USD = 100,800KRW$이므로 100,800원이다.
3. 두 금액 중 낮은 금액은 100,000원이므로 기말 장부금액은 100,000원이다.
4.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800원 높으므로 평가손실은 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장부금액 96,000원과 평가손실 4,000원은 순실현가능가치 $96USD$에도 거래일 환율을 적용한 결과이다. 틀린 환율 적용이며, 올바르게는 순실현가능가치를 기말 환율로 환산하여 장부금액 100,000원, 평가손실 0원으로 처리한다.
② O — 취득원가 100,000원이 순실현가능가치 100,800원보다 낮으므로 장부금액은 100,000원이고 평가손실은 0원이다.
③ X — 평가손실 4,000원은 순실현가능가치에 거래일 환율을 잘못 적용한 금액이고, 장부금액 100,000원과도 양립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장부금액 100,000원, 평가손실 0원이다.
④ X — 평가손실 4,200원은 외화 차액 $4USD$에 기말 환율을 곱해 외화금액끼리 먼저 비교한 결과이다. 기능통화로 각각 환산하면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높으므로 올바른 평가손실은 0원이고 장부금액은 100,000원이다.
⑤ X — 100,800원은 기말 순실현가능가치의 환산액이지 재고자산 장부금액이 아니다. 저가법상 더 낮은 취득원가를 선택하므로 올바른 장부금액은 100,000원이고 평가손실은 0원이다.

오답 포인트

외화금액만 보면 순실현가능가치가 $100USD$에서 $96USD$로 감소했으므로 평가손실이 생긴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기능통화 기준으로는 환율 상승까지 반영한 순실현가능가치가 100,800원으로 취득원가 100,000원보다 높다. 또한 역사적 원가인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기말 환율로 다시 환산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화 재고자산은 먼저 취득원가에 거래일 환율을 적용하고, 기말 순실현가능가치에 기말 환율을 적용한다. 그다음 기능통화로 환산된 두 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정한다.

암기 포인트

외화 재고자산의 저가법은 '원가는 거래일 환율, 기말 순실현가능가치는 기말 환율, 비교는 기능통화'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8. (주)세무의 20x1년 재고자산 관련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20x1년 말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은?

○ 20x1년 말 재고실사를 한 결과 (주)세무의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의 원가는 ₩100,000이다.
○ 20x1년도 중 고객에게 원가 ₩80,000 상당의 시송품을 인도하였으나, 기말 현재까지 매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 20x1년도 중 운영자금 차입목적으로 은행에 원가 ₩80,000의 재고자산을 담보로 인도하였으며, 해당 재고자산은 재고실사 목록에 포함되지않았다.
○ (주)한국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x1년도 중 원가 ₩100,000 상당의 재고자산을 (주)한국으로 운송하였으며, 이 중 기말 현재 미판매되어 (주)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40,000이다.
○ (주)대한으로부터 원가 ₩65,000의 재고자산을 도착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하였으나 20x1년 말 현재 운송중이다.

① ₩220,000
② ₩260,000
③ ₩300,000
④ ₩320,000
⑤ ₩365,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재고자산의 물리적 보관 장소가 아니라 기말 현재 소유권을 기준으로 포함할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창고 보관 재고 ₩100,000은 포함한다. 시송품 ₩80,000은 고객이 아직 매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판매자의 재고로 포함한다. 은행에 담보로 인도한 재고 ₩80,000은 담보 제공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포함한다. 수탁자 (주)한국이 보유한 미판매 위탁품 ₩40,000은 위탁자인 (주)세무의 재고로 포함한다.
도착지인도조건 매입품 ₩65,000은 기말 현재 운송 중이므로 매수인인 (주)세무의 재고에서 제외한다.

사용할 공식

기말 재고자산 = 창고 보관 재고 + 미승인 시송품 + 담보 제공 재고 + 미판매 위탁품

도착지인도조건 매입품은 도착 전까지 매수인의 재고가 아니므로 더하지 않는다.

NoteBase

계산 과정

포함할 재고자산의 금액(원)은 다음과 같다.
100,000 + 80,000 + 80,000 + 40,000 = 300,000
따라서 20x1년 말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은 ₩300,000이다.

선지 판단

① X — ₩220,000은 창고 재고 ₩100,000, 미승인 시송품 ₩80,000, 미판매 위탁품 ₩40,000만 합하고 담보 제공 재고 ₩80,000을 누락한 금액이다. 담보 제공 재고도 포함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300,000이다.
② X — ₩260,000은 창고 재고 ₩100,000, 미승인 시송품 ₩80,000, 담보 제공 재고 ₩80,000만 합하고 미판매 위탁품 ₩40,000을 누락한 금액이다. 미판매 위탁품도 포함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300,000이다.
③ O — 소유권이 (주)세무에 있는 창고 재고, 미승인 시송품, 담보 제공 재고, 미판매 위탁품을 합하면 ₩300,000이다.
④ X — 소유권 기준으로 포함할 네 금액의 합계는 ₩300,000이므로 ₩320,000은 ₩20,000만큼 과대계상한 금액이다. 문제의 자료에는 추가로 포함할 ₩20,000의 재고가 없으며, 올바른 금액은 ₩300,000이다.
⑤ X — ₩365,000은 올바른 금액 ₩300,000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도착지인도조건 매입품 ₩65,000을 잘못 더한 금액이다. 이 운송 중 상품은 기말 현재 매수인의 재고가 아니므로 제외하며, 올바른 금액은 ₩300,000이다.

오답 포인트

창고 밖에 있다는 이유로 시송품·담보 제공 재고·미판매 위탁품을 제외하면 안 된다. 반대로 도착지인도조건 매입품은 매입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도착 전에는 매수인의 재고가 아니다. 보관 장소와 소유권 이전 시점을 혼동하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재고에 대하여 기말 현재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를 먼저 판정한 뒤, 자기 소유 재고만 더한다. 시송품은 고객의 매입의사 표시 여부, 담보품은 소유권 이전 여부, 위탁품은 판매 여부, 운송 중 상품은 인도조건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재고는 장소가 아니라 소유권이다. 미승인 시송품·담보품·미판매 위탁품은 포함하고, 도착 전 도착지인도조건 매입품은 제외한다.

NoteBase

문 9. 20x1년 말 (주)세무의 자산총액은 기초 대비 ₩4,000,000 증가하였고, 부채총액은 기초 대비 ₩2,000,000 감소하였다. 20x1년 중에 유상증자를 하고 그 대가 전액 ₩500,000을 토지 취득에 사용하였으며, 이후 무상증자 ₩1,000,000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금배당 ₩800,000과 주식배당 ₩500,000을 결의·지급하였고, 자기주식을 ₩600,000에 취득하였다. 매도가능금융자산 기말 공정가치가 기초 대비 ₩400,000 증가하였다면,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① ₩5,000,000

② ₩5,500,000

③ ₩6,000,000

④ ₩6,500,000

⑤ ₩7,000,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회계등식으로 자본총액의 증감액을 구한 뒤, 자본을 변동시킨 거래를 당기순이익과 구분하여 역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자산총액은 4,000,000원 증가하고 부채총액은 2,000,000원 감소하므로 자본총액은 6,000,000원 증가한다.
유상증자 500,000원은 자본 증가, 현금배당 800,000원과 자기주식 취득 600,000원은 자본 감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증가 400,000원은 기타포괄손익을 통한 자본 증가이다.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은 자본 내부의 계정 대체이므로 자본총액을 바꾸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회계등식에서 Δ 자본=Δ 자산-Δ 부채이다.
따라서 6,000,000=당기순이익+500,000-800,000-600,000+400,000이다.
자본총액의 변동에는 당기순이익 외에도 소유주와의 거래 및 기타포괄손익이 포함되므로 이들을 분리하기 위해 이 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자본 증가액은 $4{,}000{,}000 - (-2{,}000{,}000) = 6{,}000{,}000$이다.
2. 당기순이익 이외의 순자본변동은 $500{,}000 - 800{,}000 - 600{,}000 + 400{,}000 = -500{,}000$이다.
3.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6{,}000{,}000 - (-500{,}000) = 6{,}500{,}00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5,000,000원은 계산된 당기순이익 6,500,000원보다 1,500,000원 작다. 올바르게는 6,500,000원이다.
② X — 5,500,000원은 계산된 당기순이익 6,500,000원보다 1,000,000원 작다. 올바르게는 6,500,000원이다.
③ X — 6,000,000원은 자본총액의 증가액을 그대로 당기순이익으로 본 값이다. 유상증자·현금배당·자기주식 취득·기타포괄손익의 영향을 조정하면 올바르게는 6,500,000원이다.
④ O — 자본 증가액 6,000,000원에서 당기순이익 이외의 순자본감소 500,000원을 역산하면 당기순이익은 6,500,000원이다.
⑤ X — 7,000,000원은 유상증자 500,000원의 자본 증가 효과를 차감하지 않을 때 나오는 값이다. 유상증자는 당기순이익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면 올바르게는 6,50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을 자본총액의 증가로 보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두 거래는 자본 내부 대체일 뿐 자본총액에는 영향이 없다. 토지 취득도 현금이 토지로 바뀐 자산 내부 대체이므로 자산총액과 자본총액을 바꾸지 않는다. 반면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을 감소시키고,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이익은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자본을 증가시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회계등식으로 자본총액의 증감을 구하고, 각 거래를 당기손익·소유주와의 거래·기타포괄손익·자본 내부 대체로 분류한 뒤 당기순이익을 역산한다.

암기 포인트

자본 변동은 당기순이익만이 아니다. 유상증자·배당·자기주식·기타포괄손익을 조정하고,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은 자본총액 변동에서 제외한다.

NoteBase

문 10. (주)세무는 20x1년 초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인 기계를 ₩4,500,000에 매입하였으며, 설치장소를 준비하는데 ₩500,000을 지출하였다. 동 기계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매 회계연도 말 기계에 대한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으며, 회수가능액 변동은 기계의 손상 또는 그 회복에 따른 것이라고 할 때,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구 분	20×1년 말	20×2년 말
순공정가치	₩2,000,000	₩3,500,000
사용가치	1,800,000	2,500,000

① 20x1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1,000,000이다.

② 20x1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2,000,000이다.

③ 20x2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 환입액은 ₩1,500,000이다.

④ 20x2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500,000이다.

⑤ 20x2년 말 기계의 장부금액은 ₩3,500,000이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계의 취득원가와 정액법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뒤, 회수가능액에 따른 손상차손 및 환입액과 환입 후 장부금액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득원가: 매입가격 4,500,000원 + 설치장소 준비 지출 500,000원 = 5,000,000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원,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회수가능액: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므로 20×1년 말에는 2,000,000원, 20×2년 말에는 3,500,000원이다.
손상차손 환입 후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할 공식

정액법 감가상각비=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사용가치)
손상차손=손상 전 장부금액-회수가능액
환입 후 장부금액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이라는 상한이 적용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1년 감가상각비는 (5,000,000원 - 0원) ÷ 5년 = 1,000,000원이다. 따라서 손상 인식 전 장부금액은 4,000,000원이다.
2. 20×1년 말 회수가능액은 2,000,000원이므로 손상차손은 4,000,000원 - 2,000,000원 = 2,000,000원이다. 손상 후 장부금액은 2,000,000원이다.
3. 20×2년 감가상각비는 손상 후 장부금액 2,000,000원을 남은 내용연수 4년으로 나눈 500,000원이다. 환입 직전 장부금액은 1,500,000원이다.
4. 20×2년 말 회수가능액은 3,500,000원이지만,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은 5,000,000원 - 2년간 감가상각비 2,000,000원 = 3,000,000원이다. 따라서 환입 후 장부금액은 상한인 3,000,000원이며, 환입액은 3,000,000원 - 1,500,000원 = 1,50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O — 기계 취득원가는 설치장소 준비 지출을 포함한 5,000,000원이고, 정액법 연간 감가상각비는 1,000,000원이다.
② O — 20×1년 손상 전 장부금액 4,000,000원이 회수가능액 2,000,000원을 2,000,000원 초과하므로 손상차손은 2,000,000원이다.
③ O — 20×2년 환입 직전 장부금액은 1,500,000원이고 환입 후 장부금액의 상한은 3,000,000원이므로 환입액은 1,500,000원이다.
④ O — 20×1년 말 손상 후 장부금액 2,000,000원을 남은 내용연수 4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므로 20×2년 감가상각비는 500,000원이다.
⑤ X — '20×2년 말 장부금액은 3,500,000원'이 틀렸다. 회수가능액이 3,500,000원이더라도 환입 후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 3,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올바른 장부금액은 3,00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⑤는 회수가능액 3,500,000원을 그대로 장부금액으로 보는 함정이다. 손상차손 환입은 회수가능액까지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이라는 상한도 함께 적용한다. 또한 20×2년 감가상각비는 최초 취득원가가 아니라 20×1년 말 손상 후 장부금액을 남은 내용연수에 배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취득원가 산정 → 손상 전 감가상각 →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 인식 → 손상 후 장부금액으로 다음 연도 감가상각 → 환입 가능액과 손상 미인식 가정 장부금액 상한 비교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고, 손상차손 환입 후 장부금액은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넘지 못한다.

NoteBase

문 11. (주)세무는 20x1년 초 (주)한국과 건설계약(공사기간 4년, 계약금액 ₩2,000,000)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는 20x1년에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였으나, 20x2년 초부터 시작된 (주)한국의 재무상태 악화로 20x2년에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게 되었고 계약금액 중 보험에 가입된 ₩800,000만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20x3년 초 (주)한국의 재무상태가 다시 정상화됨에 따라 계약금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면, (주)세무가 20x1년, 20x2년 및 20x3년에 인식할 공사손익은? (단, (주)세무는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진행률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한다.)

	20×1년	20×2년	20×3년	20×4년
누적발생계약원가	₩280,000	₩960,000	₩1,280,000	₩1,600,000
추정총계약원가	1,4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① 20x1년: ₩120,000 이익 / 20x2년: ₩280,000 손실 / 20x3년: ₩480,000 이익

② 20x1년: ₩120,000 이익 / 20x2년: ₩120,000 손실 / 20x3년: ₩320,000 이익

③ 20x1년: ₩120,000이익 / 20x2년: ₩0 / 20x3년: ₩200,000이익

④ 20x1년: ₩120,000 이익 / 20x2년: ₩120,000 이익 / 20x3년: ₩80,000 이익

⑤ 20x1년: ₩0 / 20x2년: ₩0 / 20x3년: ₩320,000이익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기간에는 진행률에 따라 누적 공사수익과 누적 공사이익을 계산하고,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기간에는 회수 가능성이 높은 원가 범위에서 수익을 인식한 뒤 기간별 손익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계약금액은 2,000,000원이다.
20x1년에는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20x2년에는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계약금액 중 800,000원만 회수할 수 있다.
20x3년에는 재무상태가 정상화되어 계약금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누적발생계약원가는 20x1년 280,000원, 20x2년 960,000원, 20x3년 1,280,000원이고, 추정총계약원가는 각각 1,400,000원, 1,600,000원, 1,600,000원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진행률=누적발생계약원가추정총계약원가
누적 공사수익=계약금액×진행률
당기 공사손익=당기 공사수익-당기 발생계약원가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20x1년과 20x3년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한다. 20x2년에는 신뢰성 있는 추정이 불가능하므로 수익을 회수 가능한 누적 원가인 800,000원까지만 인식한다.

계산 과정

1. 20x1년 진행률은 280,000원 ÷ 1,400,000원 = 20%이다. 누적 공사수익은 2,000,000원 × 20% = 400,000원이므로 당기 공사이익은 400,000원 - 280,000원 = 120,000원이다.
2. 20x2년 말 누적 공사수익은 회수 가능한 800,000원으로 제한된다. 20x1년까지 400,000원을 인식했으므로 20x2년 당기 공사수익은 400,000원이다. 20x2년 당기 발생계약원가는 960,000원 - 280,000원 = 680,000원이므로 당기 공사손익은 400,000원 - 680,000원 = 280,000원 손실이다.
3. 20x3년에는 다시 진행기준을 적용한다. 진행률은 1,280,000원 ÷ 1,600,000원 = 80%이고, 누적 공사수익은 2,000,000원 × 80% = 1,600,000원이며 누적 공사이익은 1,600,000원 - 1,280,000원 = 320,000원이다. 20x2년까지의 누적 손익은 120,000원 이익 - 280,000원 손실 = 160,000원 손실이므로 20x3년 당기 공사이익은 320,000원 - (-160,000원) = 48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O. 20x1년 120,000원 이익, 20x2년 280,000원 손실, 20x3년 480,000원 이익으로 계산 결과와 모두 일치한다.
② X. ‘20x2년 120,000원 손실’과 ‘20x3년 320,000원 이익’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20x2년 280,000원 손실, 20x3년 480,000원 이익이다. 320,000원은 20x3년 말 누적 공사이익이지 20x3년 당기 공사이익이 아니다.
③ X. ‘20x2년 0’과 ‘20x3년 200,000원 이익’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20x2년 280,000원 손실, 20x3년 480,000원 이익이다. 20x2년에는 당기 발생원가 680,000원이 당기 수익 400,000원을 초과하므로 손익이 0이 될 수 없다.
④ X. ‘20x2년 120,000원 이익’과 ‘20x3년 80,000원 이익’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20x2년 280,000원 손실, 20x3년 480,000원 이익이다. 20x2년에는 회수 가능액의 제한 때문에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다.
⑤ X. 세 연도의 금액이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20x1년 120,000원 이익, 20x2년 280,000원 손실, 20x3년 480,000원 이익이다. 20x1년에는 진행률 20%를 적용하므로 이익이 0이 아니며, 20x2년에도 당기 수익과 당기 원가의 차이인 손실을 인식한다.

오답 포인트

20x3년 말 누적 공사이익 320,000원을 20x3년 당기 공사이익으로 오인하기 쉽다. 기간별 손익을 구할 때에는 해당 연도 말 누적 손익에서 직전 연도 말 누적 손익을 차감해야 한다. 또한 20x2년에는 수익 인식액이 회수 가능한 누적액 800,000원으로 제한되므로 당기 발생원가와 비교하여 280,000원 손실이 발생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연도별로 신뢰성 있는 추정 가능 여부를 구분한다. 추정 가능 연도에는 진행률로 누적 수익과 누적 손익을 계산하고, 추정 불가능 연도에는 회수 가능한 원가 범위에서 수익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당기 손익은 당기 말 누적 손익에서 전기 말 누적 손익을 차감하여 구한다.

암기 포인트

진행기준 문제의 핵심은 '누적액을 먼저 계산하고 전기 누적액을 빼서 당기액을 구한다'는 것이다.

NoteBase

문 12.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된다.

②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은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이다.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③ 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 이 표현충실성이라는 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추정치이어야 한다.

④ 표현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 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 맥락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⑤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을 구분하고, 검증가능성과 표현충실성의 정확한 의미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근본적 질적 특성은 정보가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 우선 갖추어야 하는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목적적합성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성질이고, 표현충실성은 나타내려는 경제적 현상을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 없이 서술하는 성질이다.
보강적 질적 특성은 이미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이다. 검증가능성은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관찰자들이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해당 서술이 표현충실한지에 관해 의견을 같이할 수 있는 성질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이다. 이러한 질적 특성은 재무제표에 담긴 정보뿐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된다.
② O. 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적시성·이해가능성은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는 정해진 순서가 없으며,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한 특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특성이 일부 감소할 수도 있다.
③ X. 틀린 표현은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추정치이어야 한다'이다. 계량화된 정보는 단일 점추정치가 아니어도 검증할 수 있으며, 가능한 금액의 범위와 그에 관련된 확률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O. 표현충실성의 '오류 없음'은 현상에 대한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정보 산출 절차를 선택·적용하는 과정에 오류가 없다는 뜻이다. 특히 추정치가 포함된 정보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⑤ O. 재무정보에 예측가치나 확인가치 또는 두 가치가 모두 있으면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목적적합성이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은 검증가능성을 '하나의 정확한 수치로 확정되는 성질'로 오해하게 만든다. 검증가능성은 단일 수치 여부가 아니라 독립적인 관찰자들이 사용된 방법·가정·결과에 관해 합리적으로 의견을 같이할 수 있는지에 관한 특성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목적적합성·표현충실성은 근본적 특성, 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적시성·이해가능성은 보강적 특성으로 나눈다. 이어 '반드시 완전히 일치', '단일 점추정치이어야 함',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처럼 질적 특성을 절대적인 조건으로 바꾸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근본은 목적적합성·표현충실성, 보강은 비교·검증·적시·이해이다. 검증가능성은 단일 점이 아니라 범위와 확률에도 성립할 수 있다.

NoteBase

문 13. (주)세무는 20x1년 초 토지를 ₩1,000,000에 취득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해 오던 중 20x4년 초에 동 토지를 ₩1,150,000에 처분하였다. 취득 후 각 보고기간 말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토지의 처분과 관련하여 20x4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해야 할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 (주)세무는 취득시점부터 동 토지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매년 적용하고 있으며, 토지와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토지를 제거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20×1년 말	20×2년 말	20×3년 말
₩1,100,000	₩900,000	₩1,200,000

① 당기손익: ₩50,000 이익 / 기타포괄손익: ₩0

② 당기손익: ₩50,000 이익 / 기타포괄손익: ₩200,000 손실

③ 당기손익: ₩0 / 기타포괄손익: ₩150,000 손실

④ 당기손익: ₩50,000 손실 / 기타포괄손익: ₩0

⑤ 당기손익: ₩50,000 손실 / 기타포괄손익: ₩200,000 손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토지를 처분할 때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처분 직전 장부금액의 차이로 계산하고, 누적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득원가: 1,000,000원
20×1년 말 공정가치: 1,100,000원
20×2년 말 공정가치: 900,000원
20×3년 말 공정가치이자 처분 직전 장부금액: 1,200,000원
20×4년 초 처분대가: 1,150,000원
처분 시 누적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한다.

사용할 공식

처분손익=처분대가-처분 직전 장부금액

토지는 20×3년 말 공정가치인 1,200,000원으로 재평가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이 처분 직전 장부금액이다.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거래는 자본 내 대체이므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1년 말 100,000원 상승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어 재평가잉여금이 된다.
2. 20×2년 말 200,000원 하락 중 100,000원은 기존 재평가잉여금을 감소시키고, 나머지 100,000원은 당기손실이 된다.
3. 20×3년 말 300,000원 상승 중 100,000원은 과거 당기손실을 환입하여 당기이익이 되고, 나머지 200,000원은 기타포괄이익으로서 재평가잉여금이 된다. 따라서 처분 직전 장부금액은 1,200,000원이고 누적 재평가잉여금은 200,000원이다.
4. 처분손익은 $1,150,000 - 1,200,000 = -50,000$원이므로 20×4년도 당기손익에 50,000원 손실을 인식한다.
5. 누적 재평가잉여금 200,000원은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되므로 20×4년도 기타포괄손익은 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당기손익을 50,000원 이익으로 표시한 부분이 틀렸다. 처분대가가 장부금액보다 50,000원 작으므로 올바르게는 당기손익 50,000원 손실, 기타포괄손익 0원이다.
② X — 당기손익 50,000원 이익과 기타포괄손익 200,000원 손실이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처분손실 50,000원을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 200,000원은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하므로 기타포괄손익은 0원이다.
③ X — 당기손익 0원과 기타포괄손익 150,000원 손실이 틀렸다. 처분대가 1,150,000원과 장부금액 1,200,000원의 차이인 50,000원을 당기손실로 인식하며, 기타포괄손익은 0원이다.
④ O — 처분대가가 처분 직전 장부금액보다 50,000원 작으므로 당기손익은 50,000원 손실이고,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는 기타포괄손익을 거치지 않으므로 기타포괄손익은 0원이다.
⑤ X — 당기손익 50,000원 손실은 맞지만 기타포괄손익 200,000원 손실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재평가잉여금 200,000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하므로 기타포괄손익은 0원이다.

오답 포인트

처분 시 재평가잉여금 200,000원을 없애는 것을 기타포괄손실로 오인하기 쉽다. 이 금액은 재분류조정 없이 재평가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되는 자본 내 거래이다. 또한 처분손익은 취득원가 1,000,000원이 아니라 처분 직전 장부금액 1,200,000원과 비교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평가자산 처분 문제에서는 먼저 마지막 재평가액을 처분 직전 장부금액으로 확정한 뒤 처분대가와 비교하여 당기손익을 계산한다. 그다음 누적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는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이 아닌 자본 내 대체로 처리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재평가자산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마지막 장부금액의 차이이고,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는 손익을 거치지 않는다.

NoteBase

문 14. (주)세무와 (주)한국은 20x1년 초에 모든 조건이 동일한 영업용 차량(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500,000)을 ₩9,000,000에 각각 취득하였다. 두 회사가 동 차량에 대하여 각 보고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던 중, 두 회사 모두 20x4년 초 현금 ₩3,000,000에 동 차량을 매각하였다. 두 회사의 총수익 및 동 차량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총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옳은 설명은? (단, (주)세무와 (주)한국은 동 차량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률법 상각률은 55%이다.)

	20×1년	20×2년	20×3년
(주)세무	정률법	정률법	정액법
(주)한국	정액법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

①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주)한국이 더 작다.

② 20x4년 초에 인식하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주)세무가 더 크다.

③ (주)세무의 20x2년도 감가상각비는 ₩4,675,000이다.

④ (주)한국의 20x3년 말 차량 장부금액은 ₩1,145,833이다.

⑤ (주)세무의 20x3년도 감가상각비는 ₩330,625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 시점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각 회사의 연도별 감가상각비·기말 장부금액·처분손익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득원가는 9,000,000원, 잔존가치는 500,000원, 내용연수는 4년이다. (주)세무는 20x1년과 20x2년에 정률법(상각률 55%), 20x3년에 정액법을 적용한다. (주)한국은 20x1년에 정액법, 20x2년과 20x3년에 연수합계법을 적용한다. 감가상각방법이 바뀌면 변경 시점의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새로운 방법으로 상각한다.

사용할 공식

정률법 감가상각비는 기초 장부금액×상각률이다. 정액법 감가상각비는 (변경 시점 장부금액-잔존가치)/잔여내용연수이다. 연수합계법 감가상각비는 (변경 시점 장부금액-잔존가치)×(잔여연수/잔여연수의 합계)이다. 처분이익은 처분대가에서 처분 시점의 장부금액을 뺀 금액이다. 각 회사가 연도 중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연도 초부터 새 방법을 적용하므로, 변경 시점의 미상각잔액을 기준으로 새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주)세무의 20x1년 감가상각비는 9,000,000 × 55% = 4,950,000원이므로 기말 장부금액은 4,050,000원이다. 20x2년 감가상각비는 4,050,000 × 55% = 2,227,500원이므로 기말 장부금액은 1,822,500원이다. 20x3년 초 정액법으로 변경한 뒤의 감가상각비는 (1,822,500 − 500,000)/2 = 661,250원이고, 20x3년 말 장부금액은 1,161,250원이다. 따라서 20x4년 초 처분이익은 3,000,000 − 1,161,250 = 1,838,750원이다.
(주)한국의 20x1년 감가상각비는 (9,000,000 − 500,000)/4 = 2,125,000원이므로 기말 장부금액은 6,875,000원이다. 20x2년 초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하면 상각대상금액은 6,375,000원이고 잔여연수의 합계는 3 + 2 + 1 = 6이다. 20x2년 감가상각비는 6,375,000 × 3/6 = 3,187,500원, 20x3년 감가상각비는 6,375,000 × 2/6 = 2,125,000원이다. 따라서 20x3년 말 장부금액은 1,562,500원이고, 20x4년 초 처분이익은 3,000,000 − 1,562,500 = 1,437,5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20x1년 감가상각비는 (주)세무 4,950,000원, (주)한국 2,125,000원이다. 다른 수익과 비용이 같으므로 감가상각비가 더 큰 (주)세무의 당기순이익이 더 작다. 틀린 표현 '(주)한국이 더 작다'는 '(주)세무가 더 작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 20x4년 초 처분이익은 (주)세무 1,838,750원, (주)한국 1,437,500원이므로 (주)세무가 더 크다.
③ X — (주)세무의 20x2년 감가상각비는 기초 장부금액 4,050,000원에 55%를 곱한 2,227,500원이다. 틀린 금액 '4,675,000원'은 '2,227,5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주)한국의 20x3년 말 차량 장부금액은 6,875,000 − 3,187,500 − 2,125,000 = 1,562,500원이다. 틀린 금액 '1,145,833원'은 '1,562,5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주)세무의 20x3년 감가상각비는 변경 시점 장부금액 1,822,500원에서 잔존가치 500,000원을 뺀 뒤 잔여 내용연수 2년으로 나눈 661,250원이다. 틀린 금액 '330,625원'은 '661,250원'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감가상각방법 변경 시 취득 당시의 원가로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지 않고 변경 시점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전진 적용한다. 특히 ⑤의 330,625원은 20x3년 초 남은 내용연수를 2년이 아니라 4년처럼 나눈 값이므로, 경과한 연수를 다시 포함한 오류이다. 처분이익 비교에서는 처분대가가 같으므로 처분 직전 장부금액이 더 작은 회사의 처분이익이 더 크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회사별로 '기초 장부금액 →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 → 기말 장부금액'을 연도순으로 계산한다. 방법이 바뀌는 연도에는 변경 직전 장부금액, 잔존가치, 잔여 내용연수를 다시 확정한 뒤 새 방법을 적용하고, 처분손익은 마지막 장부금액과 처분대가를 비교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전진 적용이며, 처분대가가 같으면 장부금액이 작을수록 처분이익이 크다.

NoteBase

문 15. (주)세무는 20x1년 초에 (주)한국의 주식 25%를 ₩1,000,000에 취득하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취득일 현재 (주)한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4,000,000이며,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주)한국은 20x1년도 총포괄이익 ₩900,000(기타포괄이익 ₩100,000 포함)을 보고하였다. (주)세무가 20x1년 중에 (주)한국으로부터 중간배당금 ₩60,000을 수취하였다면, (주)세무가 20x1년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지분법이익은?

① ₩60,000

② ₩165,000

③ ₩200,000

④ ₩225,000

⑤ ₩26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피투자기업의 총포괄이익에서 기타포괄이익을 분리한 뒤, 당기손익에 해당하는 지분율만큼 지분법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지분율 25%, 총포괄이익 900,000원, 기타포괄이익 100,000원, 수취배당금 6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20x1년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지분법이익이다.
주의할 조건: 취득원가 1,000,000원은 취득 순자산 장부금액의 지분 1,000,000원(4,000,000원 × 25%)과 같고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도 같으므로, 취득일 차이에서 발생하는 추가 상각 조정은 없다. 기타포괄이익의 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배당금은 투자주식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므로 지분법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피투자기업 당기순이익=총포괄이익-기타포괄이익
지분법이익=피투자기업 당기순이익×지분율
총포괄이익에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이익이 함께 들어 있으므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지분법이익을 구할 때는 기타포괄이익을 먼저 제외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900,000원 - 100,000원 = 800,000원이다.
2. (주)세무가 인식할 지분법이익은 800,000원×25\%=200,000원이다.
3. 기타포괄이익의 지분 25,000원(100,000원 × 25%)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배당금 60,000원은 투자주식 장부금액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둘 다 당기손익의 지분법이익 200,000원에는 가감하지 않는다.

선지 판단

① X — 60,000원은 수취한 배당금이다. 배당금은 지분법이익이 아니라 투자주식 장부금액의 감소로 처리한다. 틀린 값 60,000원 → 올바른 지분법이익은 200,000원이다.
② X — 165,000원은 총포괄이익의 지분 225,000원에서 배당금 60,000원을 차감한 값이다. 기타포괄이익의 지분은 당기손익에서 제외하고 배당금도 지분법이익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틀린 값 165,000원 → 올바른 지분법이익은 200,000원이다.
③ O — 당기순이익 800,000원에 지분율 25%를 적용하면 지분법이익은 200,000원이다.
④ X — 225,000원은 총포괄이익 900,000원 전체에 지분율 25%를 적용한 값으로, 기타포괄이익의 지분 25,000원까지 당기손익에 포함한 오류이다. 틀린 값 225,000원 → 기타포괄이익 100,000원을 제외한 당기순이익 800,000원에 25%를 적용하여 20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260,000원은 지분법이익 200,000원에 배당금 60,000원을 더한 값이다. 배당금은 수익이 아니라 투자주식 장부금액의 회수이므로 더하지 않는다. 틀린 값 260,000원 → 올바른 지분법이익은 20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총포괄이익 900,000원에 바로 25%를 적용하면 ④가 되고, 그 값에서 배당금을 차감하면 ②가 된다.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은 기타포괄이익과 배당금을 당기손익의 지분법이익에 섞는 것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총포괄이익이 제시되면 먼저 기타포괄이익을 빼서 당기순이익을 구한 뒤 지분율을 곱한다. 취득일 공정가치 차이는 추가 상각 여부를 확인하고, 배당금은 지분법이익이 아니라 투자주식 장부금액 감소로 분리한다.

암기 포인트

지분법 당기손익은 당기순이익 × 지분율이고, 기타포괄이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배당금은 투자주식 감소로 처리한다.

NoteBase

문 16. (주)세무의 20x1년 중 자본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x1년도 자본 증가액은? (단, (주)세무는 주당 액면금액이 ₩1,000원 보통주만을 발행하고 있다.)

◯ 2월 1일: 보통주 200주를 주당 ₩1,500에 유상증자
◯ 3월 31일: 자기주식 50주를 주당 ₩1,000에 취득
◯ 5월 10일: 3월 31일에 취득한 자기주식 중 20주를 소각
◯ 7월 1일: 상장기업 A사 주식 150주를 주당 ₩1,500에 취득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
◯ 8월 25일: 보통주 50주를 무상감자
◯ 9월 1일: 보통주 100주를 주당 ₩800에 유상감자
◯ 12월 31일: 상장기업 A사 주식 공정가치 주당 ₩1,200

① ₩55,000
② ₩105,000
③ ₩115,000
④ ₩125,000
⑤ ₩235,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각 거래가 총자본을 증가시키는지, 감소시키는지, 아니면 자본 내부의 대체에 불과한지를 구분하여 20x1년도 자본 증가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유상증자는 납입액만큼 자본이 증가한다. 자기주식 취득과 유상감자는 지급액만큼 자본이 감소한다. 자기주식 소각과 무상감자는 이 문항의 조건에서는 자본 항목 사이의 대체이므로 총자본을 바꾸지 않는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은 기타포괄손실로 자본을 감소시킨다.

사용할 공식

자본 증가액=유상증자 납입액-자기주식 취득액-유상감자 지급액-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실
자본의 명목금액 변동이 아니라 각 거래로 인한 총자본의 순변동을 구해야 하므로 이 계산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유상증자: 200주 × 1,500원=300,000원 증가이다.
2. 자기주식 취득: 50주 × 1,000원=50,000원 감소이다.
3. 자기주식 20주의 소각: 자본금 20,000원과 자기주식 20,000원이 함께 제거되므로 총자본 변동은 0원이다.
4. A사 주식 취득: 금융자산과 현금의 교환이므로 취득 시 총자본 변동은 0원이다.
5. 보통주 50주의 무상감자: 자본금 감소액이 자본 내 다른 항목으로 대체되므로 총자본 변동은 0원이다.
6. 유상감자: 100주 × 800원=80,000원을 주주에게 지급하므로 자본이 80,000원 감소한다. 액면금액 100,000원과 지급액의 차이 20,000원은 자본 내부 조정이다.
7.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 150주 × (1,200원-1,500원)=-45,000원이므로 기타포괄손실로 자본이 45,000원 감소한다.
8. 따라서 300,000-50,000-80,000-45,000=125,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계산 결과는 55,000원이 아니라 125,000원이다. 올바르게는 '20x1년도 자본 증가액은 125,000원이다'이다.
② X — 계산 결과는 105,000원이 아니라 125,000원이다. 자기주식 소각을 별도의 자본 감소로 다시 차감하면 안 된다. 올바르게는 '20x1년도 자본 증가액은 125,000원이다'이다.
③ X — 계산 결과는 115,000원이 아니라 125,000원이다. 각 거래의 실제 현금 지급액과 기타포괄손실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올바르게는 '20x1년도 자본 증가액은 125,000원이다'이다.
④ O — 유상증자 300,000원에서 자기주식 취득액 50,000원, 유상감자 지급액 80,000원, 평가손실 45,000원을 차감하면 125,000원이다.
⑤ X — 계산 결과는 235,000원이 아니라 125,000원이다. 유상감자의 실제 지급액과 자기주식 취득액을 빠뜨리면 안 된다. 올바르게는 '20x1년도 자본 증가액은 125,000원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액면금액의 증감과 총자본의 증감을 같게 보는 것이다. 자기주식 소각과 무상감자는 총자본의 추가 감소가 아니며, 액면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한 유상감자에서는 액면금액 100,000원이 아니라 실제 지급액 80,000원이 총자본 감소액이다. 또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손실 45,000원도 기타포괄손실을 통해 자본을 감소시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거래를 '외부 납입·지급', '자본 내부 대체', '기타포괄손익'으로 나눈다. 외부에서 유입된 금액은 더하고 외부로 지급된 금액과 평가손실은 빼며, 자본 내부 대체는 총자본 계산에서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유상증자는 납입액만큼 증가, 자기주식 취득·유상감자는 지급액만큼 감소, 자본 내부 대체는 총자본 불변이다.

NoteBase

문 17. (주)세무의 20x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5,000주였다. 20x1년 중 보통주식수의 변동내역이 다음과 같다면, 20x1년도 기본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 2월 1일: 유상증자(발행가격: 공정가치) 20%
◯ 7월 1일: 주식배당 10%
◯ 9월 1일: 자기주식 취득 1,800주
◯ 10월 1일: 자기주식 소각 600주
◯ 11월 1일: 자기주식 재발행 900주

① 17,750주
② 18,050주
③ 18,200주
④ 18,925주
⑤ 19,075주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유상증자·주식배당·자기주식 거래가 있을 때 각 기간의 유통보통주식수를 정하고 월수로 가중평균하는 문제이다. 특히 무상요소인 주식배당은 기초부터 소급 조정하지만, 공정가치로 발행한 유상증자는 실제 발행일부터 반영한다.

조건 정리

기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5,000주이다.
2월 1일 공정가치 유상증자 20%로 3,000주가 증가한다. 공정가치 발행이므로 무상요소가 없어 발행 전 기간은 소급 조정하지 않는다.
7월 1일 주식배당 10%는 대가 없이 주식 수만 늘리는 거래이므로, 비교 가능한 주당 수치를 위해 주식배당 전 유통주식수에 1.1을 소급 적용한다.
9월 1일 자기주식 1,800주 취득은 유통주식수를 줄이고, 10월 1일 그중 600주를 소각하는 것은 이미 유통주식수에서 제외된 자기주식을 없애는 것이므로 유통주식수를 다시 줄이지 않는다. 11월 1일 자기주식 900주 재발행은 유통주식수를 늘린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각 기간의 유통주식수에 해당 기간의 월수 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Σ(기간별 유통주식수×해당 월수12)
주식 수가 변동된 시점마다 실제 유통 상태가 달라지고, 주식배당은 과거 기간까지 같은 기준으로 환산해야 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1월의 조정 유통주식수는 15,000 × 1.1 = 16,500주이다.
2. 2월부터 8월까지는 유상증자 후 18,000주에 주식배당을 소급 반영하므로 18,000 × 1.1 = 19,800주이다.
3. 9월과 10월은 자기주식 1,800주 취득 후이므로 19,800 − 1,800 = 18,000주이다. 10월의 자기주식 소각은 유통주식수에 영향이 없다.
4. 11월과 12월은 자기주식 900주 재발행 후이므로 18,000 + 900 = 18,900주이다.
5. 월할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6,500×(1)/(12)+19,800×(7)/(12)+18,000×(2)/(12)+18,900×(2)/(12)=19,075주

선지 판단

① X — 계산 결과는 19,075주이므로 17,750주는 틀린 수치이다. 올바르게는 19,075주이다.
② X — 기간별 주식수 16,500주, 19,800주, 18,000주, 18,900주를 각각 1개월, 7개월, 2개월, 2개월로 가중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18,050주가 아니라 19,075주이다.
③ X — 18,200주는 7월의 주식배당을 7월 이후에만 반영하고 주식배당 전 기간을 소급 조정하지 않을 때 나오는 수치이다. 주식배당 10%는 기초부터 소급 조정하므로 올바른 값은 19,075주이다.
④ X — 18,925주는 11월 1일 자기주식 900주 재발행에 따른 2개월분 증가 효과 900 × 2/12 = 150주를 누락하면 나오는 수치이다. 재발행분을 포함한 올바른 값은 19,075주이다.
⑤ O — 모든 변동을 월할계산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19,075주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7월의 주식배당을 발생일 이후에만 반영하는 것과 10월의 자기주식 소각 때 유통주식수를 다시 차감하는 것이다. 주식배당은 기초부터 소급 조정하고, 자기주식은 취득 시 이미 유통주식수에서 빠졌으므로 그 자기주식의 소각 자체는 유통주식수를 바꾸지 않는다. 또한 자기주식 재발행은 실제 재발행일부터 유통주식수를 늘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무상증자·주식배당처럼 소급 조정할 변동과 유상증자·자기주식 거래처럼 실제 거래일부터 반영할 변동을 구분한다. 그다음 주식 수가 달라지는 시점별로 기간을 나누고, 각 기간의 유통주식수에 해당 월수 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자기주식 소각은 취득 시점에 이미 제외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주식배당은 소급, 공정가치 유상증자는 발행일부터, 자기주식은 취득 시 감소·재발행 시 증가·소각 시 유통주식수 불변이다.

NoteBase

문 18. (주)세무의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20x1년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퇴직급여 관련 비용은?

가. 확정급여채무(현재가치)

구분	20×1년
기초금액	₩150,000
당기근무원가	25,000
이자비용	15,000
과거근무원가	5,000
퇴직금 지급	(3,000)
재측정요소	(600)
기말금액	₩191,400

나. 사외적립자산(공정가치)

구분	20×1년
기초금액	₩120,000
이자수익	12,000
현금출연	35,000
퇴직금 지급	(3,000)
재측정요소	500
기말금액	₩164,500

① ₩30,000

② ₩33,000

③ ₩40,000

④ ₩45,000

⑤ ₩50,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확정급여제도에서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를 구분하고, 재측정요소와 현금흐름을 제외하여 퇴직급여 관련 비용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당기손익 반영 항목: 당기근무원가 25,000원, 과거근무원가 5,000원, 확정급여채무 이자비용 15,000원,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 12,000원
당기손익 제외 항목: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 현금출연, 퇴직금 지급
구해야 할 값: 포괄손익계산서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퇴직급여 관련 비용

사용할 공식

퇴직급여 관련 당기손익 비용 = 당기근무원가 + 과거근무원가 + 확정급여채무 이자비용 -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만,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고 현금출연과 퇴직금 지급은 비용 구성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순이자는 확정급여채무 이자비용 15,000원에서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 12,000원을 차감한 3,000원이다.
2. 당기근무원가 25,000원과 과거근무원가 5,000원에 순이자 3,000원을 더한다.
3.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비용은 25,000원 + 5,000원 + 3,000원 = 33,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30,000원은 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만 합산하여 순이자 3,000원을 빠뜨린 금액이다. 올바른 금액은 33,000원이다.
② O — 25,000원 + 5,000원 + 15,000원 - 12,000원 = 33,000원이므로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③ X — 40,000원은 당기근무원가 25,000원과 이자비용 15,000원만 합산한 금액으로, 과거근무원가를 더하고 이자수익을 차감해야 한다. 올바른 금액은 33,000원이다.
④ X — 45,000원은 당기근무원가, 과거근무원가, 이자비용을 모두 더하면서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 12,000원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올바른 금액은 33,000원이다.
⑤ X — 50,000원은 당기손익 구성요소로 계산되지 않는 금액이다. 재측정요소나 현금출연·퇴직금 지급을 비용에 섞지 않고 근무원가와 순이자만 반영한 올바른 금액은 33,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확정급여채무의 이자비용 15,000원만 비용에 더하고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12,000원을 빼지 않으면 ④를 고르게 된다. 또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이고, 현금출연과 퇴직금 지급은 당기손익 비용의 구성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확정급여제도 계산에서는 먼저 근무원가를 모으고, 채무의 이자비용에서 적립자산의 이자수익을 차감하여 순이자를 구한 뒤, 재측정요소와 현금흐름을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당기손익은 근무원가와 순이자,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이다.

NoteBase

문 19. (주)세무의 20x1년도 및 20x2년도 상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2년 말 장부상 상품수량은 4,000개였으나, 실지재고조사 결과 기말수량은 3,500개로 확인되었다. 20x2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예상 판매가격은 단위당 ₩1,500이며, 단위당 ₩300의 판매비용이 예상된다. (주)세무가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때, 20x2년도에 인식할 당기손익은?

◯ 20x1년도 기말재고자산: ₩4,000,000(단위당 원가 ₩1,000)
◯ 20x2년도 매입액: ₩11,500,000(단위당 원가 ₩1,250)
◯ 20x2년도 매출액: ₩15,000,000

① ₩3,000,000 이익
② ₩3,700,000 이익
③ ₩3,875,000 이익
④ ₩4,300,000 이익
⑤ ₩4,500,000 이익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실지재고수량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를 비교하여 기말재고자산을 평가한 뒤 당기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초재고자산은 4,000,000원이고 단위당 원가는 1,000원이므로 4,000개이다. 당기매입액은 11,500,000원이고 단위당 원가는 1,250원이므로 9,200개이다. 장부상 기말수량 4,000개가 아니라 실지재고수량 3,500개를 기말재고수량으로 사용한다.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는 판매가격 1,500원에서 판매비용 300원을 뺀 1,200원이다.

사용할 공식

기말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순실현가능가치=예상 판매가격-예상 판매비용
매출원가=기초재고자산+당기매입액-기말재고자산
당기이익=매출액-매출원가
선입선출법에서는 먼저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 것으로 보므로, 남아 있는 3,500개는 최근 매입분의 단위당 원가 1,250원을 적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실지재고의 취득원가는 3,500개 × 1,250원 = 4,375,000원이다.
2. 실지재고의 순실현가능가치는 3,500개 × 1,200원 = 4,200,000원이다.
3. 저가법에 따라 기말재고자산은 두 금액 중 낮은 4,200,000원이다.
4. 매출원가는 4,000,000원 + 11,500,000원 - 4,200,000원 = 11,300,000원이다.
5. 당기이익은 15,000,000원 - 11,300,000원 = 3,70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3,000,000원 이익'은 실지재고 3,500개를 기초재고의 단위당 원가 1,000원으로 평가할 때 나오는 금액이다. 선입선출법상 기말재고에는 최근 매입분의 원가를 적용하고 저가법으로 평가하므로, 올바르게는 3,700,000원 이익이다.
② O — 기말재고자산 4,200,000원을 차감한 매출원가는 11,300,000원이고, 매출액 15,000,000원에서 이를 빼면 3,700,000원 이익이다.
③ X — '3,875,000원 이익'은 실지재고의 취득원가 4,375,000원을 그대로 기말재고로 사용하여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1,200원에 따른 평가손실 175,000원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다. 올바르게는 3,700,000원 이익이다.
④ X — '4,300,000원 이익'은 장부상 수량 4,000개에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1,200원을 적용하여 기말재고를 4,800,000원으로 계산한 결과로, 실지재고조사에서 확인된 500개 부족분을 무시한다. 올바르게는 실지수량 3,500개를 사용한 3,700,000원 이익이다.
⑤ X — '4,500,000원 이익'은 올바른 당기이익보다 800,000원 크며, 실지재고수량과 저가법을 모두 반영한 기말재고자산 4,200,000원 및 매출원가 11,300,0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3,700,000원 이익이다.

오답 포인트

장부상 수량 4,000개를 그대로 쓰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먼저 실지재고수량 3,500개로 재고 부족을 반영하고, 그 수량의 선입선출 취득원가 4,375,000원과 순실현가능가치 4,200,000원을 비교해야 한다. ③은 저가법 평가손실 175,000원을 빠뜨린 값이고, ④는 재고 부족 500개를 빠뜨린 값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고자산 계산에서는 실지수량 확정 → 원가흐름가정에 따른 취득원가 계산 → 순실현가능가치 계산 → 둘 중 낮은 금액으로 기말재고 평가 → 매출원가와 당기손익 계산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말재고는 실지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선입선출 기말재고는 최근 원가를 적용한 뒤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NoteBase

문 20. 특수관계자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의 관계는 거래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한다. 기업은 지배기업의 명칭을 공시한다.

②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들과의 특수관계자거래와 채권 · 채무 잔액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투자기업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그 종속기업 간을 제외하고 연결실체 내 기업 간 특수관계자거래와 채권 · 채무 잔액은 그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제거된다.

③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보고기업의 특수관계자로 본다. 이 때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범위는 자녀 및 배우자로 한정한다.

④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총액과 분류별 금액을 공시한다. 분류별 금액에는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기타 장기급여, 해고급여, 주식기준보상이 해당된다.

⑤ 특수관계는 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자거래가 없더라도 특수관계 자체가 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특수관계의 공시 범위와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범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특히 가까운 가족의 범위는 자녀와 배우자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특수관계자 공시는 특수관계가 재무상태와 당기순손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파악하도록 하는 공시이다.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그 개인과 기업의 거래에서 그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개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을 뜻한다. 여기에는 개인의 자녀와 배우자, 배우자의 자녀, 개인이나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포함되며, 이 열거가 전체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는 거래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공시하며, 기업은 지배기업의 명칭도 공시한다.
② O —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과의 특수관계자거래 및 채권·채무 잔액은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공시 대상이다. 다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연결실체 내부의 거래와 잔액을 제거하며, 투자기업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종속기업 사이의 거래·잔액은 예외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범위는 자녀 및 배우자로 한정한다'이다. 실제로는 자녀와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자녀, 개인이나 배우자의 피부양자 등이 포함되며, 사실과 상황에 따라 그 밖의 가족도 가까운 가족에 해당할 수 있다.
④ O — 주요 경영진 보상은 총액과 함께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기타 장기급여, 해고급여, 주식기준보상의 분류별 금액을 공시한다.
⑤ O — 특수관계자거래가 실제로 없더라도 지배력 등의 특수관계 자체가 기업의 의사결정과 거래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기순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은 가까운 가족의 대표 예시인 자녀와 배우자를 전체 범위로 바꾸어 놓았다. '포함한다'와 '한정한다'를 혼동하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특수관계자 범위를 묻는 선지에서는 열거된 가족이 예시인지 한정인지 먼저 확인한다. 가까운 가족은 가족관계의 명칭만으로 기계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해당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개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가까운 가족은 '자녀·배우자만'이 아니다. 배우자의 자녀와 양쪽의 피부양자도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NoteBase

문 21. (주)세무는 (가) ~ (바) 영업부문을 가지고 있으며, 부문수익(내부 및 외부) 및 부문당기손익과 부문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부문으로 옳은 것들로만 모두 고른 것은? (단,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보고하기 위한 다른 기준들은 모두 충족된다고 가정한다.)

부문	부문수익	부문당기이익(손실)	부문자산
가	₩360,000	₩20,000	₩324,000
나	250,000	10,000	261,000
다	90,000	(10,000)	81,000
라	120,000	(5,000)	81,000
마	130,000	4,000	99,000
바	50,000	6,000	54,000
합계	₩1,000,000	₩25,000	₩900,000

양적기준에 따라 (주)세무가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보고해야 하는

① 가, 나

② 가, 나, 마, 바

③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바

⑤ 가, 나, 다, 라, 마, 바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보고부문의 양적 기준인 수익 기준, 손익 기준, 자산 기준을 각각 계산하고, 셋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영업부문을 모두 찾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수익 합계는 1,000,000원이므로 수익 기준액은 100,000원이다. 이 기준은 (가), (나), (라), (마)가 충족한다.
이익 발생 부문의 이익 합계는 40,000원이고 손실 발생 부문의 손실 절댓값 합계는 15,000원이다. 둘 중 큰 금액인 40,000원의 10%인 4,000원이 손익 기준액이다.
자산 합계는 900,000원이므로 자산 기준액은 90,000원이다. 이 기준은 (가), (나), (마)가 충족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수익 기준액: 1,000,000 × 10% = 100,000
손익 기준액: max(40,000, 15,000) × 10% = 4,000
자산 기준액: 900,000 × 10% = 90,000
보고부문은 이 세 기준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손익 기준에서는 이익 부문 합계와 손실 부문 합계의 절댓값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계산 과정

1. 수익이 100,000원 이상인 부문은 (가), (나), (라), (마)이다.
2. 부문손익의 절댓값이 4,000원 이상인 부문은 (가) 20,000원, (나) 10,000원, (다) 10,000원, (라) 5,000원, (마) 4,000원, (바) 6,000원으로 여섯 부문 모두이다. 손실인 (다)와 (라)도 절댓값으로 비교한다.
3. 자산이 90,000원 이상인 부문은 (가), (나), (마)이다.
4. 어느 한 기준만 충족해도 보고부문이므로 최종 대상은 (가), (나), (다), (라), (마), (바) 전부이다.

선지 판단

① X — '가, 나'만 제시하여 (다), (라), (마), (바)를 누락했다. 올바르게는 손익 기준을 충족하는 (다), (라), (마), (바)까지 포함한 '가, 나, 다, 라, 마, 바'이다.
② X — '가, 나, 마, 바'는 (다)와 (라)를 누락했다. (다)의 손실 절댓값은 10,000원, (라)의 손실 절댓값은 5,000원으로 모두 손익 기준액 4,000원 이상이다. 올바르게는 '가, 나, 다, 라, 마, 바'이다.
③ X — '나, 다, 라, 마'는 (가)와 (바)를 누락했다. (가)는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바)는 부문이익 6,000원이 손익 기준액 4,000원 이상이다. 올바르게는 '가, 나, 다, 라, 마, 바'이다.
④ X — '가, 나, 다, 라, 바'는 (마)를 누락했다. (마)는 수익 130,000원과 자산 99,000원이 각각의 기준을 넘고, 이익 4,000원도 손익 기준액과 같아 포함된다. 올바르게는 '가, 나, 다, 라, 마, 바'이다.
⑤ O — (가)부터 (바)까지 모든 부문이 적어도 하나의 양적 기준을 충족한다. 특히 손익 기준만 적용해도 여섯 부문 모두 보고 대상이 된다.

오답 포인트

손실 부문의 부문당기손익을 음수라는 이유로 제외하거나, 손익 기준액을 순이익 합계 25,000원의 10%로 계산하면 틀린다. 이익 부문 합계 40,000원과 손실 부문 합계 절댓값 15,000원 중 큰 금액을 택하고, 개별 부문도 손익의 절댓값으로 비교한다. 또한 10%와 정확히 같은 (마)의 이익 4,000원도 '이상'이므로 포함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수익·손익·자산의 세 기준액을 따로 계산한다. 다음으로 각 기준의 충족 부문을 표시한 뒤 합집합을 구한다. 손익 기준은 이익 합계와 손실 합계 절댓값 중 큰 쪽의 10%를 사용하고, 개별 손익도 절댓값으로 비교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보고부문 양적 기준은 '수익·손익·자산 중 하나라도 10% 이상'이다. 손익은 '이익 합계와 손실 합계 절댓값 중 큰 금액의 10%'이다.

NoteBase

문 22.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은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한다.

②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③ 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중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 또는 비용 항목이 있다면 이러한 항목을 추가하여 조정영업이익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④ 이익의 분배에 대해 서로 다른 권리를 가지는 보통주 종류별로 이에 대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한다. 그러나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이 부의 금액(즉, 주당손실)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⑤ 기업이 상당 기간 계속 사업이익을 보고하였고,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에 필요한 재무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세한 분석이 없이도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회계처리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하여 비용 분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영업이익, 주당이익 및 계속기업 가정의 표시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용 분석은 정보의 신뢰성과 목적적합성을 기준으로 성격별 또는 기능별 방법을 선택한다. 주당이익은 보통주 귀속 손익을 주식 수와 연결해 보여 주는 정보이므로 이익뿐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을 표시한다. 계속기업 가정은 기업이 가까운 장래에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나 현실적 대안 없이 계속 영업한다는 전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은 성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 중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여 표시한다.
② O — 관련 법규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을 요구하면 이를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에 관한 보충정보로 주석에 공시한다.
③ O — 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수익·비용 항목은 추가하여 조정영업이익 등의 명칭으로 주석 공시할 수 있다.
④ X — 틀린 표현은 '주당손실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는다'이다.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은 부의 금액인 경우에도 각각 기본주당손실과 희석주당손실로 표시해야 한다. 이익의 분배에 관한 권리가 서로 다른 보통주 종류가 있으면 종류별 금액을 표시한다.
⑤ O — 과거 상당 기간 계속 사업이익을 보고했고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에 필요한 재무자원을 확보했다면, 자세한 분석 없이도 계속기업 전제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④는 '이익'이라는 명칭 때문에 음수인 주당손실은 표시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주당이익 정보는 양수와 음수를 모두 포괄하므로 손실일 때도 표시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무제표 표시 문구에서 손실·음수라는 이유만으로 표시를 생략한다고 하면 먼저 의심한다. 주당이익은 음수이면 주당손실이라는 명칭으로 바뀔 뿐, 기본 및 희석 금액의 표시 자체는 계속된다.

암기 포인트

주당이익이 음수이면 미표시가 아니라 주당손실로 표시한다.

NoteBase

문 23. (주)세무의 현금흐름표 작성을 위한 20x1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의 20x1년도 투자활동순현금흐름과 재무활동순현금흐름은? (단, (주)세무는 이자의 지급, 이자 및 배당금의 수입은 영업활동으로, 배당금의 지급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 유상증자로 ₩250,000, 장기차입금으로 ₩300,000을 조달하였다.
◯ 20x1년 초 매출채권 잔액은 ₩300,000이었고, 여기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20,000 설정되어 있다. 20x1년 말 매출채권 잔액은 ₩500,000이며, 대손추정을 통하여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50,000으로 증가하였다.
◯ 20x0년 경영성과에 대해 20x1년 3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200,000을 지급하였다.
◯ 기초와 기말의 법인세 부채는 각각 ₩300,000과 ₩400,000이었다.
◯ 당기에 유형자산을 총원가 ₩1,500,000에 취득하였으며, 이 중에서 ₩900,000은 금융리스로 취득하였다. 나머지 ₩600,000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금융리스부채의 상환은 20x2년 초부터 이루어진다.
◯ 취득원가가 ₩800,000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이 ₩500,000인 공장 설비를 현금매각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을 인식하였다.

① 투자활동순현금흐름: ₩200,000 유출 / 재무활동순현금흐름: ₩350,000 유입
② 투자활동순현금흐름: ₩200,000 유출 / 재무활동순현금흐름: ₩550,000 유입
③ 투자활동순현금흐름: ₩400,000 유입 / 재무활동순현금흐름: ₩200,000 유출
④ 투자활동순현금흐름: ₩600,000 유출 / 재무활동순현금흐름: ₩350,000 유입
⑤ 투자활동순현금흐름: ₩600,000 유출 / 재무활동순현금흐름: ₩550,000 유입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현금흐름표에서 현금이 실제로 오간 거래만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자산 매각대금과 비현금거래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투자활동: 유형자산 현금취득 600,000원 유출, 공장 설비 현금매각 400,000원 유입이다. 금융리스 취득액 900,000원은 당기 현금 유출이 없는 비현금거래이므로 제외한다.
재무활동: 유상증자 250,000원 유입, 장기차입금 조달 300,000원 유입, 배당금 지급 200,000원 유출이다.
금융리스부채는 20x2년부터 상환하므로 20x1년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출채권·대손충당금 및 법인세부채 변동은 이 문제에서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 현금흐름을 구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투자활동순현금흐름 = 투자활동 현금유입 - 투자활동 현금유출
재무활동순현금흐름 = 재무활동 현금유입 - 재무활동 현금유출
공장 설비의 현금매각대금은 장부금액에 처분이익을 더해 구한다.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800,000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 500,000원을 뺀 300,000원이므로 매각대금은 400,000원이다.

계산 과정

1. 공장 설비 장부금액 = 800,000원 - 500,000원 = 300,000원이다.
2. 공장 설비 현금매각대금 = 장부금액 300,000원 +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원 = 400,000원이다.
3. 투자활동순현금흐름 = 매각대금 400,000원 - 현금취득액 600,000원 = 200,000원 유출이다.
4. 재무활동순현금흐름 = 유상증자 250,000원 + 장기차입금 300,000원 - 배당금 지급 200,000원 = 350,000원 유입이다.

선지 판단

① O — 투자활동은 200,000원 유출이고 재무활동은 350,000원 유입이므로 두 금액이 모두 일치한다.
② X — 재무활동 550,000원 유입은 유상증자와 차입금만 더하고 배당금 지급 200,000원을 빼지 않은 금액이다. 올바르게는 재무활동순현금흐름 350,000원 유입이다.
③ X — 투자활동 400,000원 유입은 설비 매각대금만 반영하고 유형자산 현금취득 600,000원을 누락한 값이며, 재무활동 200,000원 유출은 배당금 지급만 반영하고 유상증자와 차입금 조달을 누락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투자활동 200,000원 유출, 재무활동 350,000원 유입이다.
④ X — 재무활동 350,000원 유입은 맞지만, 투자활동 600,000원 유출은 유형자산 현금취득액만 반영하고 설비 매각대금 400,000원을 누락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투자활동순현금흐름 200,000원 유출이다.
⑤ X — 투자활동 600,000원 유출은 설비 매각대금 400,000원을 누락했고, 재무활동 550,000원 유입은 배당금 지급 200,000원을 누락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투자활동 200,000원 유출, 재무활동 350,000원 유입이다.

오답 포인트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원을 현금유입액으로 보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처분이익은 매각대금 자체가 아니라 매각대금과 장부금액의 차이이므로, 매각대금은 장부금액 300,000원에 처분이익 100,000원을 더한 400,000원이다. 또한 금융리스 취득 900,000원은 비현금거래이고 당기 상환도 없으므로 현금흐름 계산에서 제외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거래에 당기 현금 수수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활동별로 분류한다. 자산 처분은 장부금액에 처분손익을 반영해 실제 매각대금을 복원하고, 재무활동에서는 자본·차입 유입에서 배당금 지급과 부채 상환을 차감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자산 취득·매각은 투자활동, 증자·차입·배당 지급은 재무활동이며, 비현금 취득은 현금흐름에서 제외한다.

NoteBase

문 24. (주)세무의 20x1년도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x1년의 재고자산평균보유기간은? (단, 재고자산회전율 계산 시 평균재고자산을 사용하며, 1년은 360일로 가정한다.)

◯ 매출총이익: ₩106,000
◯ 당기 현금매출액: ₩45,000
◯ 기초 매출채권: ₩60,000
◯ 기말 매출채권: ₩105,000
◯ 당기 매출채권 회수액: ₩250,000
◯ 기초 상품재고: ₩150,000
◯ 당기 상품매입액: ₩194,000

① 200일
② 210일
③ 220일
④ 230일
⑤ 240일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매출채권 변동으로 당기 외상매출액을 역산한 뒤 매출원가, 기말재고자산, 평균재고자산을 차례로 구하여 재고자산평균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매출총이익 106,000원, 현금매출액 45,000원, 기초·기말 매출채권 60,000원·105,000원, 매출채권 회수액 250,000원, 기초 상품재고 150,000원, 당기 상품매입액 194,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재고자산평균보유기간이다.
주의할 조건: 평균재고자산을 사용하고, 1년은 360일로 계산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외상매출액=기말 매출채권+회수액-기초 매출채권
매출원가=매출액-매출총이익
기말재고=기초재고+매입액-매출원가
평균재고=기초재고+기말재고2
재고자산평균보유기간=360일재고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매출원가평균재고
재고자산평균보유기간은 평균재고가 매출원가로 몇 번 회전하는지를 일수로 환산한 값이므로 평균재고자산과 매출원가를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외상매출액은 105,000원 + 250,000원 - 60,000원 = 295,000원이다.
2. 총매출액은 현금매출액 45,000원 + 외상매출액 295,000원 = 340,000원이다.
3. 매출원가는 340,000원 - 106,000원 = 234,000원이다.
4. 기말재고자산은 150,000원 + 194,000원 - 234,000원 = 110,000원이다.
5. 평균재고자산은 150,000+110,0002=130,000원이다.
6. 재고자산회전율은 234,000130,000=1.8회이다.
7. 재고자산평균보유기간은 360일1.8=200일이다.

선지 판단

① O — 계산 결과가 200일이므로 옳다.
② X — 210일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틀린 값 210일은 올바르게는 200일이다.
③ X — 220일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틀린 값 220일은 올바르게는 200일이다.
④ X — 230일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틀린 값 230일은 올바르게는 200일이다.
⑤ X — 240일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틀린 값 240일은 올바르게는 200일이다.

오답 포인트

당기 매출채권 회수액을 총매출액으로 바로 사용하면 안 된다. 먼저 매출채권 등식으로 외상매출액 295,000원을 구하고 현금매출액 45,000원을 더해야 한다. 또한 재고자산회전율의 분모에는 기말재고 110,000원이 아니라 평균재고 130,000원을 사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매출채권 증감으로 외상매출액을 구하고, 총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을 빼 매출원가를 계산한 뒤, 재고자산 등식으로 기말재고와 평균재고를 구한다. 마지막에 360일을 재고자산회전율로 나누어 평균보유기간을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평균재고 보유일수 = 360일 ÷ 재고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원가 ÷ 평균재고이다.

NoteBase

문 25. 사업결합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전한 자산이나 부채가 사업결합을 한 후에도 결합기업에 여전히 남아 있고, 취득자가 그 자산이나 부채를 계속 통제하는 경우에는, 취득자는 그 자산과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자산과 부채에 대한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②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은 일반적으로 취득자가 법적으로 대가를 이전하여, 피취득자의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 날인 종료일이다. 그러나 취득자는 종료일보다 이른 날 또는 늦은 날에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

③ 취득자와 피취득자가 지분만을 교환하여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에 취득일에 피취득자 지분의 공정가치가 취득자 지분의 공정가치보다 더 신뢰성 있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취득자는 이전한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 대신에 피취득자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를 사용하여 영업권의 금액을 산정한다.

④ 과거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이고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취득자는 취득일에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를 인식한다.

⑤ 공정가치로 측정한 보상자산의 경우에 회수 가능성으로 인한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 영향을 공정가치 측정에 포함하였으므로 별도의 평가충당금은 필요하지 않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사업결합에서 이전대가의 측정, 취득일, 우발부채와 보상자산의 인식·측정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대가로 이전한 자산이나 부채가 결합 후에도 결합기업 안에 남아 취득자가 계속 통제하면 실질적으로 외부에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직전 장부금액을 유지하고 차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이다. 이전한 자산이나 부채가 결합기업에 남아 취득자가 계속 통제하면 사업결합 직전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차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② O — 취득일은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이다. 일반적으로 법적 종료일과 같지만 계약 내용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종료일보다 빠르거나 늦을 수 있다.
③ O — 지분만 교환한 결합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전한 취득자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를 사용한다. 다만 피취득자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가 더 신뢰성 있게 측정되면 그 금액을 사용하여 영업권을 산정한다.
④ O — 인수한 우발부채가 과거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이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취득일에 인식한다. 이때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충당부채 인식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⑤ O — 보상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할 때에는 회수 가능성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이 이미 공정가치에 반영된다. 따라서 같은 위험에 대해 별도의 평가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①은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취득일 공정가치'라는 일반 원칙을 대가로 이전했지만 결합기업 내부에 계속 남는 자산·부채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계속 통제하는 자산·부채는 외부 처분이 아니므로 장부금액을 유지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해당 항목이 피취득자에게서 새로 취득한 자산·부채인지, 취득자가 대가로 이전했으나 결합기업 안에 남아 계속 통제하는 자산·부채인지 구분한다. 전자는 취득일 공정가치가 원칙이고, 후자는 직전 장부금액을 유지하며 차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결합 후에도 계속 통제하면 장부금액 유지·차손익 없음, 지배력 획득일이 취득일이다.

NoteBase

문 26. (주)세무의 지난 6개월간 기계가동시간과 기계수선비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가 고저점법을 사용하여 7월의 기계수선비를 ₩2,019,800으로 추정하였다면, 예상 기계가동시간은? (단, 기계수선비의 원가동인은 기계가동시간이다.)

월	기계가동시간	기계수선비
1	3,410시간	₩2,241,000
2	2,430	1,741,000
3	3,150	1,827,000
4	3,630	2,149,000
5	2,800	2,192,500
6	2,480	1,870,000

① 2,800시간

② 3,140시간

③ 3,250시간

④ 3,500시간

⑤ 3,720시간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고저점법으로 단위당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추정한 뒤, 총원가식에 예상 수선비를 대입하여 기계가동시간을 역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최고 조업도: 4월 3,630시간, 기계수선비 2,149,000원
최저 조업도: 2월 2,430시간, 기계수선비 1,741,000원
7월 예상 기계수선비: 2,019,800원
구해야 할 값: 7월 예상 기계가동시간
고저점은 수선비 금액이 아니라 원가동인인 기계가동시간을 기준으로 선택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단위당 변동수선비는 다음과 같다.
b=최고점 수선비-최저점 수선비최고점 가동시간-최저점 가동시간
총수선비 함수는 $Y = a + bX$이다. 여기서 a는 고정수선비, b는 시간당 변동수선비, X는 기계가동시간이다.
조업도 변화에 따른 총원가의 변화를 두 극점으로 추정하는 고저점법이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시간당 변동수선비를 계산한다.
b=2,149,000-1,741,0003,630-2,430=408,0001,200=340원/시간
2. 고정수선비를 계산한다.
a=2,149,000-(340×3,630)=914,800원
3. 7월 예상 수선비 2,019,800원을 총수선비 함수에 대입한다.
$2{,}019{,}800 = 914{,}800 + 340X$
X=2,019,800-914,800340=3,250시간

선지 판단

① X — 2,800시간을 대입하면 예상 수선비는 1,866,800원으로 2,019,800원과 다르다. ‘2,800시간’은 ‘3,250시간’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3,140시간을 대입하면 예상 수선비는 1,982,400원으로 목표 금액보다 37,400원 적다. ‘3,140시간’은 ‘3,250시간’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3,250시간을 대입하면 $914{,}800 + 340 \times 3{,}250 = 2{,}019{,}800$원이 되어 주어진 예상 수선비와 일치한다.
④ X — 3,500시간을 대입하면 예상 수선비는 2,104,800원으로 목표 금액보다 85,000원 많다. ‘3,500시간’은 ‘3,250시간’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3,720시간을 대입하면 예상 수선비는 2,179,600원으로 목표 금액보다 159,800원 많다. ‘3,720시간’은 ‘3,250시간’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5월의 기계수선비 2,192,500원이 가장 크다는 이유로 5월을 고점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 고저점법의 고점과 저점은 총원가가 아니라 원가동인의 활동량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이 문항에서는 4월과 2월을 사용한다. 또한 예상 수선비 전체를 340원으로 나누지 않고 먼저 고정수선비 914,800원을 차감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원가동인의 최고·최저 활동량을 찾고, 두 점의 원가 차이를 활동량 차이로 나누어 단위당 변동원가를 구한다. 그다음 한 점을 이용해 고정원가를 구하고, 총원가식 $Y = a + bX$에 목표 총원가를 대입하여 필요한 활동량을 계산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고저점법은 '원가의 고저'가 아니라 '조업도의 고저'를 고른다. 총원가는 고정원가와 단위당 변동원가에 활동량을 곱한 금액의 합이다.

NoteBase

문 27. (주)세무는 주문을 받고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이다.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6,200, 단위당 변동가공원가(전환원가) ₩11,800이며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는 ₩4,200,000이다. 20x0년도에 280개를 주문받아 판매하였으며, 매출총이익률은 25%였다. 판매가격과 원가구조가 20x0년과 동일하다면 20x1년도에 ₩1,000,000 이상의 매출총이익을 얻기 위한 최소 판매량은?

① 160개

② 170개

③ 180개

④ 190개

⑤ 200개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20x0년의 매출총이익률로 단위당 판매가격을 역산한 뒤, 단위당 매출총이익과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이용하여 목표 매출총이익을 달성하는 최소 판매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6,200원 + 11,800원 = 18,000원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 4,200,000원
20x0년 판매량: 280개
20x0년 매출총이익률: 25%
20x1년 목표 매출총이익: 1,000,000원 이상
판매가격과 원가구조는 두 연도에 동일하다.

사용할 공식

20x0년 매출원가 =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 판매량 + 고정제조간접원가
매출총이익률이 25%이므로 매출원가는 매출액의 75%이다. 따라서 매출액=매출원가/0.75이다.
20x1년 매출총이익은 (단위당 판매가격-단위당 변동제조원가)Q-고정제조간접원가이다. 주문받아 생산·판매하므로 판매량 Q에 대응하는 변동제조원가를 차감하고,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총액으로 차감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x0년 매출원가는 $18,000 \times 280 + 4,200,000 = 9,240,000$원이다.
2. 매출원가가 매출액의 75%이므로 20x0년 매출액은 $9,240,000/0.75 = 12,320,000$원이다.
3. 단위당 판매가격은 $12,320,000/280 = 44,000$원이다.
4. 단위당 판매가격에서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를 차감한 금액은 $44,000 - 18,000 = 26,000$원이다.
5. 목표 매출총이익 조건은 26,000Q-4,200,000≥1,000,000이므로 Q≥200이다. 따라서 최소 판매량은 200개이다.

선지 판단

① X — '160개'이면 매출총이익은 $26,000 \times 160 - 4,200,000 = -40,000$원이므로 목표에 미달한다. 올바르게는 최소 200개이다.
② X — '170개'이면 매출총이익은 $26,000 \times 170 - 4,200,000 = 220,000$원이므로 목표에 미달한다. 올바르게는 최소 200개이다.
③ X — '180개'이면 매출총이익은 $26,000 \times 180 - 4,200,000 = 480,000$원이므로 목표에 미달한다. 올바르게는 최소 200개이다.
④ X — '190개'이면 매출총이익은 $26,000 \times 190 - 4,200,000 = 740,000$원이므로 목표에 미달한다. 올바르게는 최소 200개이다.
⑤ O — '200개'이면 매출총이익은 $26,000 \times 200 - 4,200,000 = 1,000,000$원으로 목표를 정확히 충족하며, 그보다 적은 190개는 목표에 미달하므로 최소 판매량이 맞다.

오답 포인트

매출총이익률 25%를 매출원가에 곱하거나, 20x0년의 단위당 제조원가에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한 값을 20x1년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판매량 변화에도 고정원가 총액이 일정하다는 조건을 놓치게 된다. 먼저 매출원가율 75%로 판매가격을 역산한 뒤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총액 4,200,000원으로 차감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매출총이익률이 주어지고 판매가격이 없으면 먼저 기준연도의 매출원가를 구하고, 매출액=매출원가/(1-매출총이익률)로 매출액과 단위당 판매가격을 역산한다. 그다음 (단위당 판매가격-단위당 변동제조원가)Q-고정제조간접원가를 목표 매출총이익 이상으로 놓아 최소 정수 판매량을 구한다.

암기 포인트

매출총이익률 25%이면 매출원가율은 75%이다. 목표 매출총이익 판매량은 (고정제조간접원가+목표 매출총이익)/(단위당 판매가격-단위당 변동제조원가)로 계산한다.

NoteBase

문 28. (주)세무는 결합원가 ₩15,000으로 제품 A와 제품 B를 생산한다. 제품 A와 제품 B는 각각 ₩7,000과 ₩3,000의 추가 가공원가(전환원가)를 투입하여 판매된다. 순실현가치법을 사용하여 결합원가를 배분하면 제품 B의 총제조원가는 ₩6,000이며 매출총이익률은 20%이다. 제품 A의 매출총이익률은?

① 23%

② 24%

③ 25%

④ 26%

⑤ 27%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제품 B의 매출총이익률과 총제조원가에서 판매가와 순실현가치를 역산한 뒤, 순실현가치 비율로 결합원가를 배분하여 제품 A의 매출총이익률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결합원가는 15,000원이다. 추가 가공원가는 제품 A가 7,000원, 제품 B가 3,000원이다. 제품 B의 총제조원가는 6,000원이고 매출총이익률은 20%이다. 구해야 할 값은 제품 A의 매출총이익률이다.

사용할 공식

매출총이익률=(판매가-총제조원가)/판매가이다. 순실현가치는 최종판매가-추가가공원가이며,
순실현가치법에서는 각 제품의 순실현가치 비율에 따라 결합원가를 배분한다. 제품 B의 결합원가 배분액과 순실현가치를 먼저 구하면 전체 순실현가치와 제품 A의 값을 역산할 수 있다.

계산 과정

1. 제품 B의 총제조원가 6,000원은 판매가의 80%이므로 판매가는 $6,000/(1-0.20)=7,500$원이다.
2. 제품 B의 결합원가 배분액은 $6,000-3,000=3,000$원이고, 순실현가치는 $7,500-3,000=4,500$원이다.
3. 제품 B에 배분된 결합원가 비율은 $3,000/15,000=20\%$이다. 따라서 전체 순실현가치는 $4,500/0.20=22,500$원이다.
4. 제품 A의 순실현가치는 $22,500-4,500=18,000$원이고, 판매가는 $18,000+7,000=25,000$원이다.
5. 제품 A의 결합원가 배분액은 $15,000-3,000=12,000$원이고, 총제조원가는 $12,000+7,000=19,000$원이다.
6. 제품 A의 매출총이익률은 $(25,000-19,000)/25,000=24\%$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계산 결과는 24%이므로 '23%'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24%이다.
② O. 제품 A의 매출총이익 6,000원을 판매가 25,000원으로 나누면 24%이다.
③ X. 계산 결과는 24%이므로 '25%'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24%이다.
④ X. 계산 결과는 24%이므로 '26%'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24%이다.
⑤ X. 계산 결과는 24%이므로 '27%'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24%이다.

오답 포인트

제품 B의 매출총이익률 20%를 원가에 곱해 판매가를 구하면 안 된다. 매출총이익률의 분모는 판매가이므로 총제조원가 6,000원은 판매가의 80%이다. 또한 순실현가치는 판매가에서 추가 가공원가를 뺀 값이며, 결합원가까지 빼는 값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매출총이익률로 판매가를 역산하고, 총제조원가에서 추가 가공원가를 빼 결합원가 배분액을 구한 다음, 순실현가치 비율을 복원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순실현가치법은 '판매가ㅡ추가 가공원가'의 상대적 비율로 결합원가를 배분한다. 매출총이익률의 분모는 판매가이다.

NoteBase

문 29. 표준원가를 사용하는 (주)세무의 20x1년 직접노무원가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x1년 예상 제품생산량은?

직접노무원가 고정예산	₩896,400
직접노무원가 실제발생액	₩1,166,400
단위당 표준 직접노무시간	83시간
단위당 실제 직접노무시간	81시간
실제 제품생산량	300개
임률차이	₩437,400 (불리)

① 300개

② 350개

③ 360개

④ 400개

⑤ 450개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직접노무원가 임률차이와 실제발생액으로 표준임률을 역산한 뒤, 고정예산 직접노무원가에서 예상 제품생산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직접노무원가 고정예산: 896,400원
직접노무원가 실제발생액: 1,166,400원
단위당 표준 직접노무시간: 83시간
단위당 실제 직접노무시간: 81시간
실제 제품생산량: 300개
임률차이: 437,400원 불리
구해야 할 값: 예상 제품생산량

NoteBase

사용할 공식

실제직접노무시간은 AH=실제생산량× 단위당 실제직접노무시간이다.
실제임률은 AR=실제직접노무원가/AH이다.
임률차이는 $AH \times (AR - SR)$이며, 불리한 차이는 $AR > SR$임을 뜻한다.
고정예산 직접노무원가는 예상생산량× 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 SR이다.

실제발생액과 임률차이를 이용하면 표준임률 SR을 구할 수 있고, 이를 고정예산식에 대입하면 예상생산량을 구할 수 있다.

계산 과정

1. 실제직접노무시간을 구한다.
AH=300×81=24,300 시간

2. 실제임률을 구한다.
AR=1,166,40024,300=48 원/시간

3. 임률차이가 437,400원 불리하므로 표준임률을 역산한다.
$24{,}300 \times (48 - SR) = 437{,}400$
48-SR=18, SR=30 원/시간

4. 예상 제품생산량을 Q라 하면 고정예산은 표준수량과 표준임률을 적용한 금액이다.
$896{,}400 = Q \times 83 \times 30$
Q=896,4002,490=360 개

선지 판단

① X — 예상생산량은 $896{,}400/(83 \times 30) = 360$개이므로 300개가 아니다. 틀린 값 300개는 실제 제품생산량이며, 올바른 예상 제품생산량은 360개이다.
② X — 고정예산을 단위당 표준노무원가 2,490원으로 나누면 360개이므로 350개가 아니다. 올바른 값은 360개이다.
③ O — 표준임률 30원/시간과 단위당 표준시간 83시간을 적용하면 단위당 표준노무원가는 2,490원이고, $896{,}400/2{,}490 = 360$개이다.
④ X — 표준임률을 역산하여 고정예산식에 대입한 결과가 360개이므로 400개가 아니다. 올바른 값은 360개이다.
⑤ X — 고정예산을 단위당 표준노무원가로 나눈 결과가 360개이므로 450개가 아니다. 올바른 값은 360개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300개는 표에 제시된 실제 제품생산량이다. 문제는 예상 제품생산량을 묻기 때문에 실제생산량을 그대로 고르면 안 된다. 또한 임률차이가 불리하다는 것은 실제임률이 표준임률보다 높다는 뜻이므로, $AR - SR$의 부호를 반대로 두면 표준임률과 예상생산량이 잘못 계산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제생산량과 단위당 실제시간으로 AH를 구하고, 실제발생액으로 AR을 구한 다음, 임률차이로 SR을 역산한다. 마지막에 고정예산을 단위당 표준시간× SR로 나누어 예상생산량을 구한다.

암기 포인트

임률차이는 $AH \times (AR - SR)$, 직접노무원가 고정예산은 예상생산량× 표준시간× 표준임률이다.

NoteBase

문 30. 다음은 (주)세무의 공헌이익 손익계산서와 전부원가 손익계산서이다. 고정판매관리비가 ₩94,000이고 제품의 판매가격이 단위당 ₩1,500일 때,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재고는? (단, 기초 및 기말재공품, 기초제품은 없다.)

공헌이익 손익계산서	
매출액	₩1,200,000
변동원가	456,000
공헌이익	744,000
고정원가	766,000
영업이익(손실)	(22,000)

전부원가 손익계산서	
매출액	₩1,200,000
매출원가	937,600
매출총이익	262,400
판매관리비	150,000
영업이익(손실)	112,400

① ₩154,000

② ₩171,300

③ ₩192,000

④ ₩214,500

⑤ ₩234,40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공헌이익 손익계산서에서 변동제조원가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분리하고, 전부원가계산의 단위당 제품원가를 구해 기말제품재고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매출액은 1,200,000원, 단위당 판매가격은 1,500원이므로 판매량은 800단위이다.
공헌이익 손익계산서의 고정원가 766,000원에는 고정판매관리비 94,000원이 포함되므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672,000원이다.
전부원가 손익계산서의 판매관리비 150,000원에서 고정판매관리비 94,000원을 빼면 변동판매관리비는 56,000원이다.

사용할 공식

판매량=매출액단위당 판매가격
전부원가 단위당 제품원가=단위당 변동제조원가+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전부원가계산에서는 변동제조원가뿐 아니라 고정제조간접원가도 제품원가에 포함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판매량은 1,200,000원 ÷ 1,500원 = 800단위이다.
2. 변동제조원가는 공헌이익 손익계산서의 변동원가 456,000원에서 변동판매관리비 56,000원을 뺀 400,000원이다. 따라서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400,000원 ÷ 800단위 = 500원이다.
3. 전부원가계산의 매출원가 937,600원 중 변동제조원가 400,000원을 제외한 537,600원은 판매된 800단위에 배부된 고정제조간접원가이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537,600원 ÷ 800단위 = 672원이다.
4. 총고정제조간접원가가 672,000원이므로 생산량은 672,000원 ÷ 672원 = 1,000단위이다. 기초제품이 없으므로 기말제품은 1,000단위 - 800단위 = 200단위이다.
5. 전부원가 단위당 제품원가는 500원 + 672원 = 1,172원이다. 따라서 기말제품재고는 200단위 × 1,172원 = 234,4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154,000원은 계산된 기말제품재고 234,4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기말제품재고는 154,000원'이 아니라 '기말제품재고는 234,400원'이 맞다.
② X — 171,300원은 전부원가 단위당 제품원가 1,172원에 기말수량 200단위를 곱한 금액이 아니다. 올바른 금액은 234,400원이다.
③ X — 192,000원은 고정제조간접원가가 포함된 단위당 제품원가 1,172원을 적용한 결과가 아니다. 올바른 금액은 234,400원이다.
④ X — 214,500원은 기말수량 200단위와 단위당 제품원가 1,172원을 적용한 결과가 아니다. 올바른 금액은 234,400원이다.
⑤ O — 200단위 × 1,172원 = 234,400원이므로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재고와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공헌이익 손익계산서의 변동원가 456,000원을 전부 변동제조원가로 보면 안 된다. 여기에는 변동판매관리비 56,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부원가계산의 재고에는 고정제조간접원가가 포함되지만 판매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두 손익계산서가 함께 주어지면 판매량을 먼저 구하고, 판매관리비를 변동분과 고정분으로 분리한 뒤, 전부원가 매출원가에서 판매된 제품에 배부된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역산한다. 마지막으로 생산량과 기말수량을 구해 전부원가 단위당 제품원가를 곱한다.

암기 포인트

변동원가계산의 재고는 변동제조원가만, 전부원가계산의 재고는 변동제조원가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함께 포함한다. 판매관리비는 제품재고에 포함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31. (주)세무는 가공부문(도색 및 조립)과 보조부문(수선 및 동력)으로 구성된다. 다음의 서비스 공급량 자료를 이용하여 상호배부법으로 보조부문의 원가를 가공부문에 배부한다. 수선부문과 동력부문에 각각 집계된 원가는 ₩300,000과 ₩200,000이다. 가공부문에 배부된 원가는 도색 횟수와 조립시간에 비례하여 각각 제품 A와 제품 B에 전액 배부된다. 제품 A와 제품 B에 사용된 도색 횟수와 조립시간이 다음과 같을 때, 제품 B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의 총원가는?

	보조부문		가공부문	
	수선	동력	도색	조립
수선		75시간	45시간	30시간
동력	200kw		100kw	200kw

	제품 A	제품 B
도색 횟수	10회	13회
조립시간	200시간	100시간

① ₩210,000

② ₩220,000

③ ₩240,000

④ ₩250,000

⑤ ₩280,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상호배부법으로 보조부문끼리 주고받은 용역을 먼저 반영한 뒤, 가공부문 원가를 각 제품의 도색 횟수와 조립시간에 따라 배부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금액 단위는 천원이다.
수선부문의 최초 원가는 300, 동력부문의 최초 원가는 200이다.
수선용역의 총공급량은 150시간이고, 이 중 동력부문에 75시간을 제공한다.
동력용역의 총공급량은 500kW이고, 이 중 수선부문에 200kW를 제공한다.
도색부문 원가는 제품 A와 B의 도색 횟수 10회와 13회에 따라, 조립부문 원가는 조립시간 200시간과 100시간에 따라 배부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수선부문의 상호배부 후 원가를 R, 동력부문의 상호배부 후 원가를 P라고 하면 다음 연립방정식을 사용한다.
$R = 300 + \frac{200}{500}P$
$P = 200 + \frac{75}{150}R$
상호배부법은 각 보조부문이 다른 보조부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까지 자기 부문 원가에 포함하므로 이 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연립방정식을 풀면 $R = 475$, $P = 437.5$이다.
2. 도색부문 배부액은 $475 \times \frac{45}{150} + 437.5 \times \frac{100}{500} = 142.5 + 87.5 = 230$이므로 230,000원이다.
3. 조립부문 배부액은 $475 \times \frac{30}{150} + 437.5 \times \frac{200}{500} = 95 + 175 = 270$이므로 270,000원이다.
4. 제품 B의 도색부문 배부액은 $230 \times \frac{13}{10+13} = 130$이므로 130,000원이다.
5. 제품 B의 조립부문 배부액은 $270 \times \frac{100}{200+100} = 90$이므로 90,000원이다.
6. 제품 B에 배부되는 보조부문 총원가는 130,000원+90,000원=22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계산된 제품 B 배부액은 ₩220,000이므로 ₩210,000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금액은 ₩220,000이다.
② O — 도색부문에서 ₩130,000, 조립부문에서 ₩90,000이 배부되어 합계가 ₩220,000이다.
③ X — 계산 결과보다 ₩20,000 큰 금액이다. 올바른 금액은 ₩220,000이다.
④ X — 계산 결과보다 ₩30,000 큰 금액이다. 올바른 금액은 ₩220,000이다.
⑤ X — 계산 결과보다 ₩60,000 큰 금액이다. 올바른 금액은 ₩220,000이다.

오답 포인트

상호배부 후 수선부문과 동력부문의 총원가 475,000원과 437,500원을 곧바로 제품에 배부하면 안 된다. 먼저 수선·동력 원가를 도색·조립 부문에 배부하고, 다시 도색 횟수와 조립시간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제품 B의 몫을 계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호배부법 문제는 보조부문 간 연립방정식 설정 → 가공부문별 원가 배부 → 가공부문별 배부기준으로 제품 원가 배부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상호배부는 보조부문끼리 먼저, 제품 배부는 가공부문별 기준으로 나중에 한다.

NoteBase

문 32. (주)세무는 기존 제품에 추가하여 새로운 제품 *F*(단위당 변동제조원가 ₩34)를 생산·판매하려고 한다. 이 경우 기존 제품의 총공헌이익이 연간 ₩80,00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 F를 생산하면, 연간 총고정제조간접원가 중 ₩55,000이 제품 F에 배부되며, 기존에 납부하던 연간 유휴토지부담금 ₩25,000이 전액 면제된다. 제품 F를 판매할 경우,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기존 제품에 대한 연간 고정판매비를 ₩35,000만큼 줄이는 대신에 제품 F의 판매비를 단위당 ₩4씩 지급하게 된다. 제품 F의 연간 판매량이 4,000단위로 예상될 때, (주)세무의 연간 총손익에 변화가 없으려면 제품 F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① ₩13

② ₩23

③ ₩35

④ ₩43

⑤ ₩55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신제품의 손익분기 판매가격을 구할 때 실제로 변하는 수익과 원가만 증분손익에 포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연간 판매량은 4,000단위이고,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34원, 단위당 판매비는 4원이다. 신제품 판매로 기존 제품의 총공헌이익 80,000원이 감소한다. 반면 유휴토지부담금 25,000원과 기존 제품의 고정판매비 35,000원이 절감된다. 제품 F에 배부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 55,000원은 기존 연간 총고정제조간접원가의 배부액일 뿐 총액의 증가가 아니므로 관련원가에서 제외한다.

사용할 공식

판매가격을 단위당 P원이라 하면 증분손익은 다음과 같다.

$$4{,}000P - 4{,}000(34 + 4) - 80{,}000 + 25{,}000 + 35{,}000 = 0$$

총손익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신제품 도입으로 생기는 증분수익과 증분원가 및 절감액을 합한 증분손익이 0이라는 뜻이므로 이 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단위당 변동원가는 34원+4원=38원이고, 연간 변동원가는 4,000단위×38원=152,000원이다.
2. 순증가 고정성 손실은 기존 제품 공헌이익 감소액 80,000원에서 유휴토지부담금 절감액 25,000원과 고정판매비 절감액 35,000원을 뺀 20,000원이다.
3. 손익분기 매출액은 152,000원+20,000원=172,000원이다.
4. 단위당 판매가격은 $P = 172{,}000 \div 4{,}000 = 43$원이 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단위당 13원이면 매출액은 52,000원이고 증분손익은 52,000원-172,000원=-120,000원이므로 총손익이 감소한다. 틀린 가격 13원은 43원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단위당 23원이면 매출액은 92,000원이고 증분손익은 -80,000원이므로 총손익에 변화가 없는 가격이 아니다. 틀린 가격 23원은 43원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단위당 35원이면 매출액은 140,000원이고 증분손익은 -32,000원이므로 총손익이 감소한다. 틀린 가격 35원은 43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 단위당 43원이면 매출액이 172,000원으로 관련원가 순액 172,000원과 같아 증분손익이 0이다.
⑤ X — 단위당 55원이면 매출액은 220,000원이고 증분손익은 48,000원이므로 총손익이 증가한다. 틀린 가격 55원은 43원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제품 F에 배부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 55,000원을 신제품 때문에 새로 발생하는 원가로 오인하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단순 배부액은 회사 전체 현금흐름을 바꾸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기존 제품 공헌이익 감소액은 기회비용으로 포함하며 면제·절감되는 비용은 차감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신제품 도입 문제에서는 각 항목이 의사결정 때문에 실제로 증가·감소하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증분 변동원가와 기회비용은 더하고, 회피 가능한 비용은 빼며, 단순 배부 고정원가는 제외한 뒤 증분손익을 0으로 두어 손익분기 가격을 구한다.

암기 포인트

관련원가는 미래·차액 원가이다. 기회비용은 포함하고, 회피 가능한 비용은 차감하며, 단순 배부액은 제외한다.

NoteBase

문 33. (주)세무는 흠집이 있는 제품 C를 5개 보유하고 있다. 흠집이 없는 정상적 제품 C의 판매가격은 ₩300이다. 제품 C의 생산에는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80과 단위당 고정제조원가 ₩20이 투입되었다. 흠집이 있는 제품 C를 외부에 단위당 ₩150에 처분하려면 단위당 판매관리비가 ₩12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사결정에 고려될 관련 항목은?

① 단위당 판매관리비 ₩12

②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80

③ 단위당 고정제조원가 ₩20

④ 단위당 제조원가 ₩100

⑤ 정상 판매가격 ₩3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의사결정에 따라 미래 현금흐름이 달라지는 관련수익·관련원가와, 이미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매몰원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흠집 제품 5개는 이미 생산되어 보유 중이므로 과거의 제조원가는 처분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외부 처분을 선택하면 단위당 처분수익 150원과 단위당 판매관리비 12원이 새로 발생한다. 정상 제품의 판매가격 300원은 흠집 제품의 처분 의사결정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수익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사용할 공식

관련 항목은 의사결정 대안 사이에서 달라지는 미래 수익과 미래 원가이다. 외부 처분에 따른 순증분현금유입은 5×(150-12)=690원이다. 이 계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처분을 선택할 때에만 처분수익과 판매관리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외부 처분수익은 5×150=750원이다.
2. 추가 판매관리비는 5×12=60원이다.
3. 순증분현금유입은 750-60=690원이다. 따라서 선지에 제시된 항목 중 관련 항목은 단위당 판매관리비 12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 단위당 판매관리비 12원은 외부 처분을 선택할 때에만 미래에 추가로 발생하므로 관련원가이다.
② X —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80원은 제품을 이미 생산하여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이므로 매몰원가이다. 틀린 표현 '관련 항목인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80원'은 '이미 발생한 비관련원가인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8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단위당 고정제조원가 20원도 이미 생산된 제품에 배부된 과거 원가로서 처분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틀린 표현 '관련 항목인 단위당 고정제조원가 20원'은 '이미 발생한 비관련원가인 단위당 고정제조원가 2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단위당 제조원가 100원은 변동제조원가 80원과 고정제조원가 20원의 합계이며, 두 구성요소 모두 이 의사결정에서는 이미 발생한 매몰원가이다. 틀린 표현 '관련 항목인 단위당 제조원가 100원'은 '비관련원가인 과거 단위당 제조원가 1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정상 판매가격 300원은 흠집이 없는 정상 제품의 가격이며, 흠집 제품을 그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기회원가가 아니다. 틀린 표현 '관련 항목인 정상 판매가격 300원'은 '이 의사결정과 무관한 정상 제품의 판매가격 300원'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②~④의 제조원가를 제품 원가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원가로 보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관련성은 변동원가·고정원가라는 명칭이 아니라 해당 의사결정으로 미래 금액이 달라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또한 ⑤의 정상 판매가격은 흠집 제품에 실제로 가능한 대안가격이 아니므로 기회원가로 사용할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원가가 이미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대안을 선택할 때 미래 현금흐름이 달라지는지 확인한다. 이미 발생한 제조원가는 제외하고, 처분을 선택할 때 추가되는 수익과 비용만 관련 항목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관련원가는 '미래에 발생하고 대안별로 달라지는 원가'이며, 이미 생산된 재고의 제조원가는 매몰원가이다.

NoteBase

문 34. (주)세무는 가중평균법을 적용한 종합원가계산으로 제품원가를 계산한다. 기말재공품의 물량은 8,000단위이고, 직접재료원가 완성도는 70%이며 가공원가(전환원가) 완성도는 75%이다. 기말재공품의 원가가 ₩220,000이고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직접재료원가가 ₩20이라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가공원가(전환원가)는?

① ₩18

② ₩19

③ ₩20

④ ₩21

⑤ ₩22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기말재공품의 직접재료원가와 가공원가를 각각의 완성품 환산량과 단위당 원가로 계산하여 가공원가의 단위당 원가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말재공품 물량: 8,000단위
직접재료원가 완성도: 70%
가공원가 완성도: 75%
기말재공품 원가: ₩220,000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20
구해야 할 값: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가공원가
주의할 조건: 직접재료원가와 가공원가는 완성도가 다르므로 각각의 완성품 환산량을 따로 계산한다.

사용할 공식

완성품 환산량=물량×완성도
기말재공품 원가=직접재료원가+가공원가
환산량 단위당 가공원가=기말재공품 가공원가가공원가 완성품 환산량
기말재공품 원가는 직접재료원가와 가공원가의 합이므로, 먼저 직접재료원가를 구해 전체 원가에서 차감하면 기말재공품의 가공원가를 구할 수 있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직접재료원가 완성품 환산량은 8,000 × 70% = 5,600단위이다.
2. 기말재공품의 직접재료원가는 5,600단위 × ₩20 = ₩112,000이다.
3. 기말재공품의 가공원가는 ₩220,000 - ₩112,000 = ₩108,000이다.
4. 가공원가 완성품 환산량은 8,000 × 75% = 6,000단위이다.
5.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가공원가는 ₩108,000 ÷ 6,000단위 = ₩18이다.

선지 판단

① O — 계산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가공원가가 ₩18이므로 옳다.
② X — ₩19는 계산 결과인 ₩18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값 '₩19'는 '₩18'로 고쳐야 한다.
③ X — ₩20는 주어진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직접재료원가이지, 구하려는 가공원가가 아니다. 틀린 값 '₩20'는 '₩18'로 고쳐야 한다.
④ X — ₩21은 계산 결과인 ₩18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값 '₩21'은 '₩18'로 고쳐야 한다.
⑤ X — ₩22는 계산 결과인 ₩18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값 '₩22'는 '₩18'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직접재료원가와 가공원가에 같은 완성도를 적용하면 안 된다. 특히 ③의 ₩20는 문제에서 직접 제시한 직접재료원가의 단위당 원가이므로 이를 가공원가의 단위당 원가로 그대로 선택하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종합원가계산의 기말재공품 문제에서는 원가요소별 완성도를 확인하고, 각 원가요소의 완성품 환산량을 별도로 계산한 뒤 해당 원가를 그 환산량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재료와 가공의 완성도가 다르면 환산량도 따로 계산한다.

NoteBase

문 35. (주)세무는 제품 A, 제품 B 및 제품 C를 생산하여 판매한다. 이 세 제품에 공통으로 필요한 재료 K를 품귀현상으로 더 이상 구입할 수 없게 되었다. (주)세무의 재료 K 보유량은 3,000kg이며, 재료 K가 소진되면 제품 A, 제품 B 및 제품 C는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 (주)세무는 각 제품의 사전계약 물량을 의무적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사전계약 물량과 별도로 추가 최대수요량까지 각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주)세무의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최대의 공헌이익 총액(사전계약 물량 포함)은?

	제품 A	제품 B	제품 C
사전계약 물량	100단위	100단위	300단위
추가 최대수요량	400단위	100단위	1,500단위
단위당 판매가격	₩100	₩80	₩20
공헌이익률	24%	25%	60%
단위당 재료 K 사용량	3kg	5kg	2kg

① ₩19,000

② ₩19,500

③ ₩20,000

④ ₩20,500

⑤ ₩21,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재료 K가 제한자원이므로 사전계약 물량을 먼저 생산한 뒤, 남은 재료를 재료 K 1kg당 공헌이익이 큰 제품부터 추가 생산하여 최대 공헌이익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단위당 공헌이익은 제품 A 24원, 제품 B 20원, 제품 C 12원이다.
사전계약 물량은 A 100단위, B 100단위, C 300단위이며 반드시 생산한다.
재료 K의 총보유량은 3,000kg이고, 추가 최대수요량은 A 400단위, B 100단위, C 1,500단위이다.

사용할 공식

단위당 공헌이익=단위당 판매가격×공헌이익률
제한자원 1kg당 공헌이익=단위당 공헌이익단위당 재료 K 사용량
제한된 재료 K를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므로 제품별 단위당 공헌이익이 아니라 재료 K 1kg당 공헌이익을 비교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단위당 공헌이익은 A가 $100 \times 24\% = 24$원, B가 $80 \times 25\% = 20$원, C가 $20 \times 60\% = 12$원이다.
2. 재료 K 1kg당 공헌이익은 A가 $24/3 = 8$원, B가 $20/5 = 4$원, C가 $12/2 = 6$원이므로 추가 생산 우선순위는 A, C, B이다.
3. 사전계약 물량에는 재료 K가 $100 \times 3 + 100 \times 5 + 300 \times 2 = 1,400kg$ 필요하고, 공헌이익은 $100 \times 24 + 100 \times 20 + 300 \times 12 = 8,000$원이다. 따라서 남은 재료 K는 $3,000 - 1,400 = 1,600kg$이다.
4. 제품 A의 추가수요 400단위를 모두 생산하면 $1,200kg$을 사용하고 공헌이익 9,600원이 발생한다. 남은 $400kg$으로 제품 C를 200단위 생산하면 공헌이익 2,400원이 발생한다.
5. 최대 공헌이익 총액은 $8,000 + 9,600 + 2,400 = 2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19,000은 사전계약 물량과 최적 추가생산 물량의 공헌이익 합계 20,0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20,000이다.
② X — ₩19,500은 재료 K 1kg당 공헌이익 순서에 따라 배분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20,000이다.
③ O — 사전계약 물량의 공헌이익 8,000원에 A 추가생산분 9,600원과 C 추가생산분 2,400원을 더하면 ₩20,000이다.
④ X — ₩20,500은 사용 가능한 재료 K $3,000kg$을 최적으로 배분하여 얻는 공헌이익을 초과한다. 올바르게는 ₩20,000이다.
⑤ X — ₩21,000은 추가 생산 우선순위와 수요 한도를 적용한 최대 공헌이익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20,000이다.

오답 포인트

공헌이익률 60%인 제품 C를 무조건 먼저 생산하면 안 된다. 제한자원이 재료 K이므로 공헌이익률이나 단위당 공헌이익이 아니라 재료 K 1kg당 공헌이익을 비교해야 한다. 또한 사전계약 물량은 선택 대상이 아니라 의무 생산 물량이므로 먼저 차감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한자원 문제는 의무생산분을 먼저 반영한 후, 각 제품의 제한자원 1단위당 공헌이익을 계산하고, 그 값이 큰 순서대로 추가수요 한도까지 자원을 배분한다.

암기 포인트

제한자원이 하나이면 '제한자원 1단위당 공헌이익'이 생산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NoteBase

문 36. 단일 제품을 제조 · 판매하는 (주)세무의 20x1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가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을 계산할 때 사용한 연간 예산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실제 제품생산량	45,000단위
제품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	2시간
예상 총직접노무시간(기준 조업도)	72,000시간
실제발생 고정제조간접원가	₩66,000
조업도차이	₩16,200 (유리)

① ₩62,600

② ₩64,800

③ ₩66,000

④ ₩68,400

⑤ ₩70,2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와 기준조업도를 이용하여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을 구한 뒤 연간 예산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역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실제 제품생산량: 45,000단위
제품 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 2시간
기준조업도: 72,000시간
조업도차이: 16,200원(유리)
구해야 할 값: 연간 예산 고정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 고정제조간접원가 66,000원은 예산차이를 구할 때 쓰는 값이므로 조업도차이 계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표준허용시간은 45,000 × 2 = 90,000시간이다.

조업도차이(유리)는 다음과 같다.
조업도차이=≤ft(표준허용시간-기준조업도)×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

표준허용시간 90,000시간이 기준조업도 72,000시간보다 크므로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더 많이 배부되어 유리한 조업도차이가 발생한다.

계산 과정

1. 표준허용시간은 45,000 × 2 = 90,000시간이다.
2. 기준조업도를 초과한 시간은 90,000 − 72,000 = 18,000시간이다.
3.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은 16,200 ÷ 18,000 = 0.9원/시간이다.
4. 연간 예산 고정제조간접원가는 72,000 × 0.9 = 64,8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62,600원은 기준조업도 72,000시간에 적용할 표준배부율로 역산한 금액이 아니다. 이를 사용하면 조업도차이는 15,650원(유리)이 된다. 틀린 금액 62,600원은 64,8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64,800원을 기준조업도 72,000시간으로 나누면 표준배부율은 0.9원/시간이고, 초과 조업도 18,000시간에 곱하면 주어진 16,200원(유리)과 일치한다.
③ X — 66,000원은 실제발생 고정제조간접원가이지 연간 예산 고정제조간접원가가 아니다. 이를 사용하면 조업도차이는 16,500원(유리)이 된다. 틀린 금액 66,000원은 64,8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68,400원을 사용하면 표준배부율은 0.95원/시간이고 조업도차이는 17,100원(유리)이 되어 주어진 값과 다르다. 틀린 금액 68,400원은 64,8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70,200원을 사용하면 표준배부율은 0.975원/시간이고 조업도차이는 17,550원(유리)이 되어 주어진 값과 다르다. 틀린 금액 70,200원은 64,800원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실제발생 고정제조간접원가 66,000원을 그대로 고르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조업도차이는 실제발생액이 아니라 표준허용시간과 기준조업도의 차이에 표준배부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실제 생산량에 단위당 표준시간을 곱해 표준허용시간을 구한다. 그다음 표준허용시간과 기준조업도의 차이로 표준배부율을 역산하고, 기준조업도에 그 배부율을 곱하여 예산 고정제조간접원가를 구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조업도차이에는 실제발생액이 들어가지 않는다. 표준허용시간과 기준조업도의 차이에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을 곱한다.

NoteBase

문 37.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며 개별정상원가계산을 사용한다.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시간당 ₩6을 예정 배부한다. 재료계정의 기초금액은 ₩10,000이며, 기말금액은 ₩15,000이다. 재료는 모두 직접재료로 사용되고 간접재료로 사용되지 않는다. 당기총제조원가는 ₩650,000이며 당기제품제조원가는 ₩640,000이다. 직접노무원가는 ₩250,000이며, 실제 발생한 직접노무시간은 20,000시간이다. (주)세무가 당기에 매입한 재료금액은?

① ₩270,000

② ₩275,000

③ ₩280,000

④ ₩285,000

⑤ ₩290,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예정배부 제조간접원가를 계산한 뒤 당기총제조원가에서 직접재료원가를 역산하고, 재료 원가흐름을 이용해 당기 재료매입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당기총제조원가 650,000원, 직접노무원가 250,000원,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 직접노무시간당 6원, 실제 직접노무시간 20,000시간, 재료 기초금액 10,000원, 재료 기말금액 15,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당기 재료매입액이다.
주의할 조건: 재료는 모두 직접재료로 사용되므로 재료사용액 전부가 직접재료원가이다. 당기제품제조원가 640,000원은 재공품의 변동을 반영한 금액이므로 재료매입액 계산에는 필요하지 않다.

사용할 공식

배부 제조간접원가=실제 직접노무시간×시간당 예정배부율
당기총제조원가=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배부 제조간접원가
기초재료+당기매입액-기말재료=직접재료사용액
개별정상원가계산에서는 제조간접원가를 실제 발생액이 아니라 예정배부율로 배부하므로 첫 번째 공식을 사용한다. 재료가 모두 직접재료이므로 직접재료사용액을 재료계정의 원가흐름에 대입해 매입액을 구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배부 제조간접원가를 계산한다.
$20{,}000 \times 6 = 120{,}000$
따라서 배부 제조간접원가는 120,000원이다.

2. 당기총제조원가에서 직접재료원가를 역산한다.
직접재료원가=650,000-250,000-120,000=280,000
따라서 직접재료사용액은 280,000원이다.

3. 재료계정의 원가흐름으로 당기매입액을 구한다.
10,000+당기매입액-15,000=280,000
당기매입액=280,000+15,000-10,000=285,000
따라서 당기 재료매입액은 285,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270,000원은 계산된 재료매입액 285,000원보다 15,000원 적다. 틀린 금액 270,000원은 285,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275,000원은 계산된 재료매입액보다 10,000원 적다. 틀린 금액 275,000원은 285,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280,000원은 당기에 사용한 직접재료원가이지 당기 재료매입액이 아니다. 틀린 금액 280,000원은 재료 기말금액과 기초금액의 차이 5,000원을 반영한 285,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 재료매입액은 직접재료사용액 280,000원에 기말재료 15,000원을 더하고 기초재료 10,000원을 빼서 계산하므로 285,000원이다.
⑤ X — 290,000원은 계산된 재료매입액보다 5,000원 많다. 틀린 금액 290,000원은 285,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③의 280,000원을 매입액으로 고르는 것이다. 280,000원은 당기총제조원가에서 역산한 직접재료사용액이다. 매입액을 구할 때는 기말재료가 기초재료보다 5,000원 증가한 사실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 또한 당기제품제조원가 640,000원은 재공품 증감을 파악할 때 쓰는 값이므로 이 계산에 끼워 넣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개별정상원가계산 문제에서는 먼저 예정배부율로 제조간접원가를 구하고, 당기총제조원가에서 직접재료원가를 역산한다. 그다음 재료 원가흐름인 '기초재료 + 매입액 - 기말재료 = 사용액'에 대입해 매입액을 계산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정상원가계산의 제조간접원가는 예정배부액을 사용한다. 재료매입액은 '사용액 + 기말재료 - 기초재료'이다.

NoteBase

문 38. 3월에 (주)세무의 매출액은 ₩700,000이고 공헌이익률은 54%이며 영업레버리지도는 3이다. 4월에 고정원가인 광고비를 3월보다 ₩30,000 증가시키면 매출이 3월보다 10% 증가하며 공헌이익률의 변화는 없다. (주)세무가 광고비를 ₩30,000 증가시킬 때, 4월의 영업이익은?

① ₩98,000

② ₩102,100

③ ₩115,800

④ ₩128,500

⑤ ₩133,80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영업레버리지도를 이용해 기존 영업이익과 고정원가를 역산한 뒤, 매출 증가와 광고비 증가를 함께 반영하여 다음 달 영업이익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3월 매출액: 700,000원
공헌이익률: 54%
3월 영업레버리지도: 3
4월 매출 증가율: 10%
4월 광고비 증가액: 30,000원
공헌이익률은 변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공헌이익=매출액× 공헌이익률
영업레버리지도=공헌이익/영업이익
영업이익=공헌이익-고정원가
영업레버리지도 3은 3월의 공헌이익이 영업이익의 3배라는 뜻이므로, 먼저 3월 영업이익과 고정원가를 역산할 수 있다. 이후 4월의 증가한 매출에 같은 공헌이익률을 적용하고 증가한 광고비를 고정원가에 더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3월 공헌이익은 $700,000 \times 0.54 = 378,000$원이다.
2. 3월 영업이익은 $378,000/3 = 126,000$원이다.
3. 3월 고정원가는 $378,000 - 126,000 = 252,000$원이다.
4. 4월 매출액은 $700,000 \times 1.10 = 770,000$원이고, 공헌이익은 $770,000 \times 0.54 = 415,800$원이다.
5. 4월 고정원가는 광고비 증가액을 반영한 $252,000 + 30,000 = 282,000$원이다.
6. 따라서 4월 영업이익은 $415,800 - 282,000 = 133,8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98,000원은 계산된 4월 영업이익 133,8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98,000원은 133,8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102,100원은 계산된 4월 영업이익 133,8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102,100원은 133,8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115,800원은 계산된 4월 영업이익 133,8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115,800원은 133,8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128,500원은 계산된 4월 영업이익 133,8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128,500원은 133,8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⑤ O — 4월 공헌이익 415,800원에서 증가 후 고정원가 282,000원을 차감하면 영업이익은 133,800원이다.

오답 포인트

매출 증가율 10%에 영업레버리지도 3을 곱하면 광고비가 변하지 않을 때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30%이다. 이 문제에서는 고정원가인 광고비가 30,000원 증가하므로 그 효과까지 추가로 차감해야 한다. 즉, 3월 영업이익 126,000원에 30% 증가를 반영한 163,800원에서 광고비 증가액 30,000원을 빼면 133,800원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영업레버리지도가 주어지면 먼저 영업이익=공헌이익/영업레버리지도로 기준기간 영업이익을 구한다. 다음 기간에는 매출 변화로 인한 공헌이익 변화와 고정원가 변화를 각각 반영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영업레버리지도는 공헌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고정원가가 추가로 변하면 매출 변화 효과와 별도로 영업이익에서 가감한다.

NoteBase

문 39. (주)세무의 외상매출대금은 판매 당월(첫째 달)에 60%, 둘째 달에 35%, 셋째 달에 5% 회수된다. 20x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 잔액은 ₩70,000이며, 이 중 ₩60,000은 20x1년 12월 판매분이고, ₩10,000은 20x1년 11월 판매분이다. 20x2년 1월에 현금매출 ₩80,000과 외상매출 ₩350,000이 예상될 때, 매출과 관련된 20x2년 1월의 현금유입액과 1월말 매출채권 잔액은?

① 현금유입액: ₩335,000 / 매출채권 잔액: ₩145,000

② 현금유입액: ₩345,000 / 매출채권 잔액: ₩145,000

③ 현금유입액: ₩345,000 / 매출채권 잔액: ₩147,500

④ 현금유입액: ₩352,500 / 매출채권 잔액: ₩145,000

⑤ 현금유입액: ₩352,500 / 매출채권 잔액: ₩147,50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판매 시점별 외상매출 회수율을 적용하여 1월 현금유입액과 1월 말 매출채권 잔액을 함께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12월 말 매출채권 70,000원은 12월 판매분 60,000원과 11월 판매분 10,000원으로 구성된다. 1월 예상 매출은 현금매출 80,000원과 외상매출 350,000원이다. 외상매출은 판매 당월 60%, 다음 달 35%, 셋째 달 5%가 회수된다.

사용할 공식

1월 현금유입액 = 1월 현금매출 + 1월 외상매출의 당월 회수액 + 12월 외상매출의 둘째 달 회수액 + 11월 외상매출의 셋째 달 회수액
1월 말 매출채권 = 1월 외상매출 미회수액 + 12월 외상매출의 셋째 달 회수 예정액
각 판매월의 외상매출에 해당 월의 회수율 또는 미회수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 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12월 말 남아 있는 12월 판매분 60,000원은 12월 외상매출의 40%이므로, 12월 외상매출은 60,000원 ÷ 40% = 150,000원이다.
2. 1월에 회수되는 12월 판매분은 150,000원 × 35% = 52,500원이고, 11월 판매분 10,000원은 셋째 달인 1월에 전액 회수된다.
3. 1월 외상매출의 당월 회수액은 350,000원 × 60% = 210,000원이다. 따라서 1월 현금유입액은 80,000원 + 210,000원 + 52,500원 + 10,000원 = 352,500원이다.
4. 1월 말에 남는 1월 외상매출은 350,000원 × 40% = 140,000원이고, 12월 외상매출 중 2월에 회수될 금액은 150,000원 × 5% = 7,500원이다. 따라서 1월 말 매출채권은 140,000원 + 7,500원 = 147,50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현금유입액 335,000원과 매출채권 145,000원은 모두 계산 결과와 다르다. 올바르게는 현금유입액 352,500원, 매출채권 147,500원이다.
② X — 현금유입액 345,000원은 12월 판매분의 1월 회수액과 잔존액을 정확히 반영한 값이 아니며, 매출채권 145,000원도 틀리다. 올바르게는 각각 352,500원과 147,500원이다.
③ X — 매출채권 147,500원은 맞지만 현금유입액 345,000원이 틀리다. 올바른 현금유입액은 352,500원이다.
④ X — 현금유입액 352,500원은 맞지만 매출채권 145,000원이 틀리다. 1월 말 매출채권은 1월 외상매출 미회수액 140,000원과 12월 판매분 잔액 7,500원의 합계인 147,500원이다.
⑤ O — 현금유입액은 352,500원이고 1월 말 매출채권은 147,500원이므로 두 금액이 모두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12월 말의 12월 판매분 매출채권 60,000원을 12월 외상매출 총액으로 보면 안 된다. 이는 당월에 60%를 회수하고 남은 40%이므로, 먼저 12월 외상매출 150,000원을 역산해야 한다. 또한 1월 현금유입액에는 현금매출 80,000원과 11월 판매분 잔액 10,000원도 포함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월별 외상매출을 먼저 복원한 뒤 각 판매월을 행으로 놓고, 계산 대상 월에 회수되는 비율과 월말에 남는 비율을 각각 적용한다. 현금매출은 현금유입액에만 더하고 매출채권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현금유입액은 해당 월에 실제로 들어오는 모든 판매대금의 합계이고, 기말 매출채권은 그 시점 이후에 회수될 외상매출의 합계이다.

NoteBase

문 40. 활동기준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접원가의 비중이 높을수록 활동기준원가계산의 도입효과가 크다.

② 전통적인 간접원가 배부방법에 비해 다양한 배부기준이 사용된다.

③ 판매관리비에는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활동원가의 계층구조 중 배치(묶음)수준원가는 배치 수나 활동시간 등을 원가동인으로 사용한다.

⑤ 전통적인 간접원가 배부방법에 비해 인과관계를 반영하는 배부기준을 찾아내는 데 많은 노력을 들인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활동기준원가계산의 적용 범위, 원가동인, 전통적 원가계산과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활동기준원가계산은 자원이 소비되어 활동원가가 발생하고, 제품·서비스·고객 등의 원가대상이 활동을 소비한다는 인과관계에 따라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이다. 전통적 원가계산이 조업도 중심의 소수 배부기준을 주로 사용하는 데 비해, 활동기준원가계산은 활동별로 다양한 원가동인을 사용한다. 또한 제조간접원가뿐 아니라 판매·고객지원 등 판매관리 활동의 원가 분석에도 적용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간접원가의 비중이 높으면 단일한 조업도 기준으로 배부할 때 원가 왜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가 높은 활동별 원가동인을 사용하는 활동기준원가계산의 도입효과가 커진다.
② O — 활동기준원가계산은 기계시간·작업횟수·배치 수 등 활동별 원가 발생 원인을 반영하는 다양한 배부기준을 사용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판매관리비에는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이다. 올바르게는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제조간접원가뿐 아니라 판매·마케팅·주문처리·고객지원 등 판매관리 활동의 원가 분석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④ O — 배치수준원가는 제품 한 단위가 아니라 배치를 처리할 때마다 발생하므로 배치 수, 작업준비 횟수나 시간 등 배치 관련 활동량을 원가동인으로 사용한다.
⑤ O — 활동기준원가계산은 원가와 활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잘 나타내는 원가동인을 활동별로 찾아야 하므로 전통적 배부방법보다 원가동인 선정에 더 많은 노력이 든다.

오답 포인트

③은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제조원가 계산에만 쓰는 제도로 오해하게 만든다. 활동기준원가계산은 원가 발생 활동과 원가대상의 인과관계를 추적하는 방법이므로 판매관리 활동에도 적용할 수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활동기준원가계산 선지는 '활동별 원가집계 → 인과관계가 높은 다양한 원가동인 → 원가대상에 배부'의 흐름으로 판단한다. 적용 대상을 제조간접원가로만 제한하는 표현은 틀린 것으로 본다.

암기 포인트

ABC는 활동별로 원인을 추적하며, 제조뿐 아니라 판매·고객 관련 활동에도 적용할 수 있다.

NoteBase